

『黃帝內經·素問』의 概念語와 論旨 分析 - 구체성과 관념성을 중심으로 -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의사학교실¹
宋泳昇¹ · 金恩瑕¹ *

Analysis of words related with medical concept and context of paragraphs in *Suwen* of *Huang Di Nei Jing* based on concreteness and ideality

Song Young-Seung¹ · Kim Eun-Ha¹ *

¹Dept. of Korean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Objective : analysis of words related with medical concept and context of paragraphs in *Suwen* of *Huang Di Nei Jing* based on concreteness and ideality.

Method : First, I extract words having medical concept out of the whole sentence of *Huang Di Nei Jing*. and classifies them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cal concept. Second, I classify all sentence of it on the basis of analysing of the words.

Result : 1. There are not an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abstract and concrete words from the perspective of cause and effect. Abstract words group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parts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character. There are the concept being formed from pure idea and the concept being formed from material idea. The main words composed most important part of the oriental medicine have a combination mode with these two word groups.
2. We have several data about concreteness and ideality of *Huang Di Nei Jing*. Subjects and contents in provisions are concrete relatively. But the logical basis of sentences is remarkably ideational. Many kinds of abstract words are used dominantly to compose logics of these basis. It confirms that concrete words can not be used to make theories and concepts in *Suwen*.

Conclusion : I analyzed words related with medical concept and context of paragraphs in *Suwen* of *Huang Di Nei Jing* based on concreteness and ideality and I found that the concept and logical system of *Huang Di Nei Jing* in the objective point of view.

Key Words :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Suwen*(素問), words related with medical concept, context, terminology

I. 緒 論

BC 2100년 경, 한 무리의 인류가 황하 주변에 정착한 이래¹⁾ 한의학의 역사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한의학은 동북아시아 문명이 가진 모든 핵심이론과 기술의 집약체로서 높은 위상을 누려왔다. 그러나 근대이후 불과 100년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한의학의 위상은 현저히 위축되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한의학의 위상이 급격히 약화된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당대(當代) 의학으로서의 학문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료행위의 권리까지 스스로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²⁾ 임상 진단과 사인분류에 있어서도 충분한 영역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³⁾.

* 교신저자 : 김은하.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65번지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원전외사학교실.
E-mail : ehkim@dhu.ac.kr Tel : 82-53-770-2240
접수일(2013년 7월27일), 수정일(2013년 8월14일),
게재확정일(2013년 8월16일).

- 1) 역사연구모임. 단숨에 읽는 세계사. 서울. 베이직북스. 2007. p.50.
- 2) ‘한방의료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체적인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의료관계법령에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관계 규정,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서울행법 2008.10.10. 선고 2008구합 11945 판결 : 확정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각공 2008하, 1882] 위 내용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내용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다.
- 3) 2010년 1월 1일부터 한의학의 임상분야에서는 개정된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체계(KCD-5)가 전격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1994년 제 2차 개정 이후 한의학의 임상에서 줄곧 사용되어 온 독립된 분류체계(KCDI) 대신 기존 양방에서 준용되어 온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KCD-5)를 통합과정을 거쳐 전면 수용한 것이다. 현재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2010.7.6)에 근거, 2011.1.1 부터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이 시행되어 적용 중이다. 이는 한의학의 객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궁

이러한 상황의 근거에는 용어와 개념, 그리고 논리체계와 같은 기초적 담론의 문제가 깔려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발단은 고대에 저술된 원전으로까지 소급된다. 이는 오늘날 교착상태에 빠진 한의학의 표준화와 관련된 내용이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의 개념체계로부터 연원함을 의미 한다⁴⁾. 그런 이유로 현대적 관점에서 한의학 논리체계의 실증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의학 고전의 대표문헌인 『黃帝內經·素問』을 대상으로 관념성과 구체성의 흔적을 추적하였다.

이와 같이 『黃帝內經·素問』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큰 난점은 장구한 세월을 거쳐 다져진 인문학적 습속⁵⁾(custom)이 담론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가로막는데 있다. 실제로 경전 속의 비실증적 담론을 충분한 검증 없이 임상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여전히 한의학계의 지배적 관습이다. 그리하여 『黃帝內經·素問』을 대상으로 하여 논지의 이데올로기를 탐색시키고, 동시에 의학적 개념은 훼손 없이 조망할 수 있는 접근법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로 개념어 중심의 어휘 및 논지의 분석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문헌의 용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⁶⁾⁷⁾는 있었으나 『黃帝內經·素問』을 대상으로

정적인 반면 한의학의 전통적 분류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학문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 4) 허정. 아시아 전통의학학을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7. p.71. ‘서양의학사를 공부하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이후 수없이 많은 의학 관계 고전이 줄을 이었으나 이제는 시대에 뒤진 일종의 역사적 문헌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등장했다는 <黃帝內經>이 오늘날에도 그 권위를 가지고 과학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양과 서양의 의학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 하겠다.’
- 5)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 새 국어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2005. p.1448. ‘어느 사회나 지역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습관들이 생활화된 풍속,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인간의 사유와 생활의 행동양식을 결정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개인적 습관처럼 사회적 습관으로서 사회 속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고 규제하고 지배한다. 관혼상제와 같은 제례(祭禮), 생활풍습, 종교 신앙 등의 행동의 기전을 이룬다.’ 이처럼 한의학 속에는 습속화된 가치체계가 혼재되어 있다.
- 6) 김명희, 이병욱, 김은하.脾胃論에 기재된 술어의 분류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3(1). pp.163~86.

개념어의 구체성과 관념성을 조망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개념어와 논지를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소박한 결과를 얻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으며 자료를 객관, 실증, 그리고 합리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黃帝內經素問』의 관념성과 구체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기에 정리하여 발표한다.

II. 本 論

1. 『黃帝內經素問』의 개념어 분석

<1> 개념어의 추출

1) 개념어 분류체계의 항목

(1) 구체어군

- ① 신체부위 구체어(concrete words of body)
 ② 생리현상 구체어(concrete words of physiological phenomena) ③ 병리현상 구체어(concrete words of pathological phenomena) ④ 자연현상 구체어(concrete words of natural phenomena) ⑤ 치료도구 구체어(concrete words of medical devices) ⑥ 공간 구체어(concrete words of space) ⑦ 시간 구체어(concrete words of time) ⑧ 오감 구체어(concrete words of sense) ⑨ 맥상 구체어(concrete words of pulse)

(2) 관념어군

- ① 관점어(abstract words of view) ② 관념어⁸⁾(abstract words of idea) ③ 관념 결합어(combined words of idea) ④ 물질 결합어(combined words of material) ⑤ 이중 결합어(double combined words)
 ⑥ 제어어(abstract words of control) ⑦ 수리어(abstract words of number)

7) 김민건, 이병욱, 김은하. 小兒藥證直訣과 脾胃論에 기재된 용어 비교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1). pp.59~79.

8) 관념어에는 관점에서 파생된 개념들 예) 陰, 陽, 天, 地 등, 오행과 관련된 각론 개념들 예) 木, 火, 土, 金, 水 등 삼음삼양과 관련된 개념들 예) 少陰, 太陽 등, 오운육기의 관념적 개념들 예) 甲子, 金運, 辛卯 등이 포함되었다.

<2> 개념어 추출 및 분류의 결과 (표 1, 표 2)⁹⁾

1) 개념어 추출분류의 내용

『黃帝內經素問』의 전문에 포함된 개념어를 추출한 결과 산정한 개념어는 총 24,243개, 전체 개념어 중 구체어군은 12,186개(50.3%), 관념어군은 12,057개(49.7%)였다. 전체에서 가장 많은 개념어는 병리현상 구체어로 3,656개였으며 가장 적은 개념어는 생리현상 구체어로 85개였다. 관념어군에서 가장 많은 개념어는 물질결합어로 3,079개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 (표 2)과 같다.

2) 개념어 추출분류의 결과¹⁰⁾ 및 분석

(1) 구체어군

① 신체부위 구체어(concrete words of body) ; 『黃帝內經素問』의 전체 내용 가운데 신체부위 구체어로 분류된 2514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순수하게 인체의 부위를 묘사한 개념어들 ; 2073(82.5%) 예) 髮, 齒, 筋骨
 b. 인체 부위의 묘사와 방위개념이 결합된 개념어들 ; 245(9.7%) 예) 足中指爪甲上

9) 본 내용은『素問』의 전문을 대상으로 추출한 모든 개념어의 수를 포함한다. 분류하는 어휘는 원문에 사용된 그대로를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였으며 다수의 개념어가 결합된 형태의 복합적인 어휘인 경우에도 분리하거나 복수로 산정하지 않았다. 단, 관념적 개념어가 구체어군의 개념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념어군에 복수 산정하였다. 반대의 경우(四時, 五味 등) 역시 복수 산정하였다. 병리 구체어 내에 인체부위, 생리적 현상 등이 언급된 경우는 각각 신체부위 구체어, 생리 구체어에 추가 산정하였다. 관념어군 내에서는 각 개념어간의 복수산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10) 개념어 추출의 결과는 개념어 추출 분류의 내용(표)과 다르다. 내용은 『素問』의 원문에 나타난 어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산정한데 비해, 결과는 결합된 덩어리 어휘를 개념어별로 분류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분리하여 산정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개념어군에 포함된 동일한 개념어를 중복하여 추가로 가산을 하였다. 예를 들어 春夏秋冬은 분류내용(표)에서는 1개로 산정하였으나 결과에서는 春, 夏, 秋, 冬으로 나누어 4개로 산정하였으므로 합산된 수가 다르다. 그러나 복수로 결합된 개념어의 경우에도 임의로 분리하였을 경우 사용된 원래형태의 의미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분리하지 않고 본래의 내용대로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였다.

표 1. 『黃帝內經素問』개념어 분석 - 구체어군

편명	부위	생리	병리	자연	도구	공간	시간	오감	맥상	합계
1上古天真論篇	31*	8	4			10	11	2		66
2四氣調神大論篇	3		11	8	1	14	20			57
3生氣通天論篇	29	1	47	17		15	16	15		140
4金匱真言論篇	32	1	16	4	1	20	42	33		149
5陰陽應象大論篇	62	5	41	74	1	62	11	82	2	340
6陰陽離合論篇	4					15	4			23
7陰陽別論篇	2		41			3	3		5	54
8靈蘭秘典論篇	1					3		1		5
9六節藏象論篇	16		4			7	13	16		56
10五藏生成篇	70	5	41	2		22		62	1	203
11五藏別論篇	14				1	2		2		19
12異法方宜論篇			4	6	9	12		3		34
13移精變氣論篇	3		5	1	10	15	5	7		46
14湯液醪醴論篇	7		4		13	10	2	2		38
15玉版論要篇	1		3		2	15	1	4		26
16診要經終論篇	22	5	34	1	2	10	42	8		124
17脈要精微論篇	54	14	69	6		61	21	28	13	266
18平人氣象論篇	35	12	52	7		16	20		69	211
19玉機真藏論篇	54	2	103	5	12	35	13	5	47	276
20三部九候論篇	28	1	20	2	2	47	13	1	17	131
21經脈別論篇	8		31			12	4		4	59
22藏氣法時論篇	40		45	5	1	13	51	43		198
23宣明五氣篇	15	7	13	5		1	7	17	5	70
24血氣形志篇	13		3		6	15				37
25寶命全形論篇	4		3	1	8	12	4	5		37
26八正神明論篇	7	1	11	8	7	19	8	6	4	71
27離合真邪論篇	4	6	7	7	8	26	6			64
28通評虛實論篇	39		67	3	10	10	12		35	176
29太陰陽明論篇	22		7	2		20	5			56
30陽明脈解篇	4		11	4		2		4		25
31熱論篇	33		55	12		5	2	1		108
32刺熱篇	57		110	4		22		2		195
33評熱病論篇	29	4	81	4		16				134
34逆調論篇	12		39	13	2	10				76
35瘧論篇	57	3	54	57		58	23		1	253
36刺瘧篇	66		85	19	7	7	3	1		188
37氣厥論篇	11		27	16		2			1	57
38效論篇	14		63	2		7	7			93
39舉痛論篇	28		115	6		24		9		182
40腹中論篇	24	1	43	3	6	15	3			95
41刺腰痛篇	75		86		2	44	4	2		213
42風論篇	41		98	16		20	5	6		186
43痺論篇	29		82	13	1	21	7			153
44痿論篇	50		64	7		12	1	2		136

45厥論篇	61		83	8		31	6			189
46病能論篇	10	1	20	2	7	8	6		12	66
47奇病論篇	39		66	1	4	13	1	5	2	131
48大奇論篇	18	1	49	3		9	2	3	44	129
49脈解篇	29		72	3		36	11	8		159
50刺要論篇	22		12	1		14	3		3	55
51刺齊論篇	37				2	2				41
52刺禁論篇	26	3	73			20				122
53刺志論篇	5		26	4	2	30				67
54鍼解篇	26		13	7	25	20	6	4		101
55長刺節論篇	43		35	14	6	12	3	3	2	118
56皮部論篇	23		8	4		14		12		61
57經絡論篇			4	3			1	16		24
58氣穴論篇	69		25		3	31	5	1		134
59氣府論篇	99					56				155
60骨空論篇	147		37	5	26	79		2		296
61水熱穴論篇	41		21	13		22	9			106
62調經論篇	20		48	5	4	58	1	5	3	144
63繆刺論篇	99		86	2	18	129	1	8		343
64四時刺逆從論篇	27		47			14	21		12	121
65標本病傳論篇	40		44	4		21	14			123
66天元紀大論篇				8		30	2	1		41
67五運行大論篇	16	1		68		76		46		207
68六微旨大論篇		2		5		50	62			119
69氣交變大論篇	92		160	47		104	25	2		430
70五常政大論篇	40		168	88	13	101	16	94		520
71六元正紀大論篇	93		243	688	30	292	24	112	2	1484
72刺法論篇										
73本病論篇										
74至真要大論篇	190		494	141		168	24	181	18	1216
75著至教論篇	3		7	1		15	2			28
76示從容論篇	8		26		8	5		1	15	63
77疏五過論篇	4		14		3	21	1	2		45
78徵四失論篇	3			1	1	4	3			12
79陰陽類論篇	11		6			17	12	1	15	62
80方盛衰論篇	4	1	24			24	10			63
81解精微論篇	19		46	3	3	12		2		85
계	2514	85	3656	1469	267	2325	660	878	332	12186

※ 해당항목의 빈도수를 의미함

표 2. 『黃帝內經·素問』개념어 분석 - 관념어군

편명	관점어	관념어	관념결합어	물질결합어	이중결합어	제어어	수리어	합계
1上古天真論篇	21*	10	10	32	14	32	26	145
2四氣調神大論篇	16	8	4	27	5	20	3	83
3生氣通天論篇	7	22	10	67	8	51	16	181
4金匱真言論篇	15	65	49	14		23	24	190
5陰陽應象大論篇	28	127	62	90		149	22	478
6陰陽離合論篇	5	70	7	1		10	14	107
7陰陽別論篇	7	67	19	10		40	34	177
8靈蘭秘典論篇	3	2	12	2		4	6	29
9六節藏象論篇	9	54	33	47		42	50	235
10五藏生成篇		1	56	36		29	18	140
11五藏別論篇	1	4	29	19		27	11	91
12異法方宜論篇	5	10		1		9		25
13移精變氣論篇	6	6	1	16		9	9	47
14湯液醪醴論篇	3	2	5	19		12	7	48
15玉版論要篇	4	9	6	8		15	6	48
16診要經終論篇	1	6	16	30	1	22	4	80
17脈要精微論篇	16	18	35	79	14	50	16	228
18平人氣象論篇	8	9	48	91	28	24	5	213
19玉機真藏論篇	8	11	78	121	18	81	27	344
20三部九候論篇	7	46	26	40	5	15	27	166
21經脈別論篇	5	17	43	51	3	40	11	170
22藏氣法時論篇	4	44	59	17		43	13	180
23宣明五氣篇		15	66	28	5	48	26	188
24血氣形志篇	3	22	11	26		26	4	92
25寶命全形論篇	14	24	11	14	1	17	14	95
26八正神明論篇	6	34	6	44		24	16	130
27離合真邪論篇	6	15	11	38	1	21	17	109
28通評虛實論篇		6	20	45	4	48	5	128
29太陰陽明論篇	7	22	24	21	1	31	11	117
30陽明脈解篇		10	7	5	1	4		27
31熱論篇		24	16	15	5	16	8	84
32刺熱篇		20	15	15	1	7		58
33評熱病論篇	1	11	12	25	2	13		64
34逆調論篇	1	21	17	22	5	35	6	107
35瘧論篇	11	44	11	77		82	6	231
36刺瘧篇		2	28	28		5	1	64
37氣厥論篇		1	34	4		1	2	42
38效論篇	1	2	48	7	1	2	7	68
39舉痛論篇	2	8	20	96	3	61	4	194
40腹中論篇		12	8	21		20	1	62
41刺腰痛篇		21	15	41	1	2		80
42風論篇	1	7	17	14		10	5	54
43痺論篇		3	31	44		35	13	126

44痿論	1	10	27	21	8	18	4	89
45厥論篇		19	14	43	3	59	1	139
46病能論篇	5	9	11	23	5	12	5	70
47奇病論篇		2	20	21	2	24	9	78
48大奇論篇		4	18	53	24	24	6	129
49脈解篇	6	47	13	53	2	53		174
50刺要論篇	1		12	4		11	2	30
51刺齊論篇				6				6
52刺禁論篇		2	16	23	2	14	1	58
53刺志論篇			2	30		28		60
54鍼解篇	9	12	16	23		30	43	133
55長刺節論篇	2	1	2	9	1	2		17
56皮部論篇	2	23	29	10	8	9	4	85
57經絡論篇	2		13	2	2	3	1	23
58氣穴論篇	3	2	8	67	2	16	10	108
59氣府論篇	1	2	4	40	12	10	3	72
60骨空論篇	1	13	9	16	8	8	1	56
61水熱穴論篇		30	34	28	7	35	5	139
62調經論篇	9	27	44	175	12	115	21	403
63繆刺論篇	1	3	52	32	8	10	6	112
64四時刺逆從論篇	4	8	25	59	8	48	7	159
65標本病傳論篇	3		11	2		1		17
66天元紀大論篇	30	111	7	25		30	32	235
67五運行大論篇	24	144	41	46		61	15	331
68六微旨大論篇	11	126		87		16	14	254
69氣交變大論篇	19	75	16	64	3	69	13	259
70 五常政大論篇	9	87	57	144	1	77	26	401
71六元正紀大論篇	30	858	15	260		190	135	1488
72刺法論篇								
73本病論篇								
74至真要大論篇	28	229	71	175		281	21	805
75著至教論篇	14	18	4	1		2	11	50
76示從容論篇	4	11	27	23	8	25	6	104
77疏五過論篇	8	3	18	22		9	12	72
78徵四失論篇	7	1	3	5	2	1	4	23
79陰陽類論篇	14	54	28	15	5	18	45	179
80方盛衰論篇	8	18	6	33	6	29	6	106
81解精微論篇	4	21	6	24	2	8	3	68
계	492	2902	1715	3112	268	2601	967	12057

※ 해당항목의 빈도수를 의미함

c. 경맥의 혈명을 표시한 개념어들 ; 157(6.2%)
예) 風府, 郄中, 廉泉

d. 맥위를 표시한 개념어들 ; 39(1.6%) 예) 寸口,
氣口, 人迎

이 중 순수하게 인체의 부위를 묘사한 개념어들
(82.5%)을 이 어휘들이 포함된 다른 개념어의 개수
까지 합해서 중복산정하면『素問』전체에 등장하는 빈
도수는 다음과 같다.

足(274), 骨(193)¹¹⁾, 腹(181), 肉(146), 胃
(腕)(143), 筋(138), 身體(131), 手(110), 目(106),
腰(89), 頭(80), 腦(79), 毛(77), 腸(74), 耳(70), 背
(62), 口(57), 筋(關節)(55), 五指(指)(49), 肌(48),
面(45), 脊(45), 髓(43), 肩(37), 項(37), 關(35), 膝
(33), 皮膚(31), 四支(30), 腠理(29), 齊(29), 鬲(25),
髮(24), 鼻(24), 股(24), 舌(23), 竅(21), 喉(21), 臑
(20), 髀(20), 首(20), 腦(19), 踝(19), 齒(18), 脛
(17), 尻(17), 爪(17), 巔(17), 腕(17), 胞(胎, 女子
胞)(16), 九竅(15), 臂(15), 膚(14), 脾(14), 膈(11),
膻(10), 咽(咽喉)(10), 眉(9), 頰(9), 乳(9), 心腹(8),
毫毛(8), 臑(6), 脣(6), 育(6), 跗(6), 輔(5), 輔(5), 額
(4), 膂(4), 內眥(4), 筋膜(4), 頤(4), 頷(4), 纂(3), 機
關(3), 掌(3), 顴(3), 骹(3), 脚(3), 陰器(3), 水道(3),
骸(2), 臄(2), 斷(2), 眞牙(2), 膜原(2), 二陰(2), 下牙
車(2), 汗空(2), 經分腠(2), 踵(2), 髓(2), 孔(2), (이
하 각 1회) 莖, 榘, 臀, 前陰, 盲膜, 募原, 小腸膜原,
陰卵, 齊肘正, 魄門, 鬼門, 腹裏, 指端, 兩腫, 膜, 廷
孔, 溺孔, 會陰, 連骸, 骸關, 骸關, 胸, 鬢.

『素問』에서 신체부위를 묘사한 개념어는 혈위
(6.2%), 맥위(1.6%) 등 관념적 개념에 의해 지정된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보다 순수하게 인체의 부위를
묘사한 개념어(82.5%)가 월등히 많았다. 여기에 방
위개념이 결합된 경우(9.7%)까지 합산하면 92.2%에
달했다. 내용 상 인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신
체부위개념어 가운데 骨(193), 肉(146), 筋(138), 肌
(48) 등과 같이 큰 골격계의 구성요소에 관한 표현
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腰(89), 頭(80), 腦(79), 背(62), 面(45),
脊(45), 髓(43), 肩(37), 項(37), 關(35), 膝(33), 四
支(30), 齊(29), 鬲(25), 鼻(24), 股(24), 舌(23), 竅
(21), 喉(21), 臑(20), 髀(20), 首(20), 腦(19), 踝
(19), 齒(18), 脛(17), 尻(17), 爪(17), 巔(17), 腕
(17), 臂(15), 脾(14), 膈(11), 膻(10), 咽, 喉(10) 등
과 같이 외견상 쉽게 관찰되는 신체 부위에 관한 표
현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이한 점은 皮膚(31), 腠理(29), 膚(14), 髮(24),
毛(77), 毫毛(8)처럼 피부조직에 대한 표현이 다양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目(106), 口(57), 面(45), 鼻
(24), 舌(23), 竅(21), 喉(21), 齒(18), 咽(咽喉)(10)
처럼 안면부위의 기관 및 조직들을 표현하는 어휘도
많았다.

이에 비해 도식적인 오장육부를 벗어난 내부 장
기에 대한 구체적 표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예외적으로 胃(143)와 腸(74), 그리고 胞(16)가 자
주 언급되었다.

② 생리현상 구체어(concrete words of
physiological phenomena) ; 『黃帝內經素問』의 전
체 내용 가운데 생리 현상 구체어로 분류된 85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呼, 吸(呼吸)(16), 汗(15), 息(11), 夢(11), 有子
(6), 言(4), 月事(3), 老(2), 吞(2), 慄, 步, 泣, 握,
攝, 眠(2), 噫(2), (이하 각 1회) 便, 欠, 涕, 淚, 涎,
唾.

이 가운데 병리 구체어에 다빈도로 등장하는 개
념어는 汗(107), 息(37), 泣(31), 言(18), 涕(17), 唾
(13), 噫(12), 涎(11), 夢(11), 慄(10), 欠(7), 便(6),
淚(2), 呼, 吸(呼吸)(2), 月事(2), 眠(1)였다.

생리 구체어는 본 연구의 전체 분류 상 가장 그
빈도수가 적은 항목에 속한다(0.4%). 대체로 呼, 吸,
汗, 夢, 息, 月事, 有子 정도의 어휘들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 가운데 병리 구체어에 다시 등장하는
어휘는 汗(107), 息(37), 泣(31), 言(18), 涕(17) 唾

11)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괄호 안의 숫자는 『黃帝內經素
問』에 등장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13), 噫(12), 涎(11), 夢(11), 慄(10), 欠(7), 便(6), 淚(2), 呼, 吸(呼吸)(2), 月事(2), 眠(1) 등이었다.

③ 병리현상 구체어(concrete words of pathological phenomena) ; 『黃帝內經素問』 전체 내용 가운데 병리현상 구체어로 분류된 3,656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구체적인 증상만을 담고 있는 개념어들 ; 2,843개(77.8%) 예) 惡寒, 發熱, 瘧狀

b. 관념적 개념어가 포함된 개념어들 ; 813개(22.2%)¹²⁾

b-1) 음양 및 물질결합어를 포함한 개념어들 ; 529개(65.1%)¹³⁾

예) 胃瘕, 肺消, 膀胱欬

b-2) 오행 및 관념결합어를 포함한 개념어들 ; 284개(34.9%)

예) 陰痺, 氣上逆, 氣實

『素問』에 등장하는 병리현상 구체어는 증상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가득 차있다. 증상을 묘사한 3,656개의 어휘들은 『素問』이 구체적인 임상서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개념어는 본 연구에서 다른 『素問』79편 가운데 무려 70편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素問』에 등장하는 병리 구체어의 구성은 구체적인 증상에 대한 묘사(77.8%)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고대인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신체부위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매우 실증적이었음을 입증한다.

방대한 병리 구체어 가운데 단순한 묘사를 벗어나 체계적인 개념어를 포함하는 내용(22.2%)은 의학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 가운데 물질적인 현상으로부터 도출된 어휘는 陰陽과 氣, 血, 脈 등 구체적인 인체를 통해 병리적 현상을 묘사한 어휘(529)이다. 나머지는 五行과 같은 관념어와 五臟六腑, 經絡 등 관념 결합어를 통해 병리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284).

관념어(관념 결합어)와 결합한 형태의 병리현상 구체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관념적 어휘들이 실증적 형태로 사용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心은 오장의 하나로서 오행에 있어 火臟의 관념적 위상을 지니고 있으나 병리 표현에서는 유물적 장기 기능계(cardiovascular system)의 형태로 묘사된다. 병리 구체어에서 心이 등장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心掣, 心滿, 心腹滿, 心煩, 心痺, 心虛, 心煩, 煩心, 心疝, 心病, 煩心, 心懸, 煩心, 心中不便, 心熱病, 卒心痛, 煩心顏青, 心熱, 心寒, 心痛, 煩心, 心欬, 心欬, 心痛, 心無所倚, 心無所倚, 悲心係急, 心風, 心痺, 心下鼓, 心下崩, 心熱, 手心熱, 心痛引喉, 心氣痿, 心肝澀, 心疝, 上走心爲噫, 夏病心痛, 中心, 心煩惋, 卒心痛, 口乾心煩, 心腹時滿, 心痺, 病心風疝, 心痛, 中滿煩心, 身熱煩心躁悸, 譫妄心痛, 邪害心火, 心痛暴瘧, 心痛, 心痛胃脘痛, 甚則心痛, 心氣上從, 心熱煩, 甚則心痛, 心下否痛, 邪傷心, 目赤心熱, 寒客心痛, 胃脘當心而痛, 心脇滿引少腹, 心腹脹, 甚則心痛脇脹, 心熱脊悶, 心痛, 心痛, 心痛, 心腹滿熱臄脹, 心痛腰痛, 心痛支滿, 心脇痛, 心痛, 厥心痛, 心澹澹大動, 心脇暴痛, 心痛, 心如懸, 煩心, 中心.

도식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도 있지만 상당수가 흉부에 발생한 병변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통증을 묘사하는 내용이 매우 빈번하다. 관념적 어휘를 포함한 병리 구체어 가운데 痛이란 단어를 포함한 어휘는 다음과 같다.

卒心痛, 心痛, 五藏卒痛, 心痛引喉, 心痛引腹, 夏病心痛, 卒心痛, 心痛, 心痛暴瘧, 心痛, 心痛, 胃脘痛, 甚則心痛, 甚則心痛, 心下否痛, 寒客心痛, 胃脘當心而痛, 甚則心痛脇脹, 心痛, 心痛, 心痛, 心痛腰痛, 心痛支滿, 心脇痛, 心痛, 厥心痛, 心脇暴痛, 心痛, 心痛發熱, 心痛發熱, 心痛否滿, 心痛否滿, 心痛, 厥心痛, 心痛, 心痛, 心痛.

37개의 어휘 가운데 心을 포함한 것이 35개에 해당한다. 이는 흉통이 흔히 발견되는 증상이며 이 증상을 묘사하기 위해 心이란 어휘를 적극 활용하였음을 뜻한다. 이 경우 心은 명백히 장기(혹은 흉부)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어떠한 관념적 성향도 포함

12) 전체 3656개에 대한 비율이다.

13) 관념적 개념어가 포함된 개념어 813개에 대한 비율이다.

하고 있지 않다.

④ 자연현상 구체어(concrete words of natural phenomena) ; 『黃帝內經·素問』전체 내용 가운데 자연현상 구체어로 분류된 1469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개념어들 ; 388 (26.4%)

예) 冰雪霜雹, 雲霧, 炎暑流火

b. 자연현상 가운데 그 성질을 추출하여 감각과 일체화시킨 개념어들 ; 1081 (73.6%) 예) 寒, 濕, 熱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어휘들(26.4%)은 素問의 전편 가운데 「運氣七篇」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운기개념이 자연현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비해 자연현상 가운데 그 성질을 추출하여 감각과 일체화시킨 風, 寒, 濕, 燥, 火, 熱, 溫 등과 같은 어휘들(73.6%)은 『素問』의 전편에 걸쳐 고르게 분포한다. 「運氣七篇」을 제외한 다른 편에서 자연현상에 대한 직접적 묘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 내용 중 26.4%를 점유하므로 어휘가 집중된 「運氣七篇」을 제외한다면 분포는 줄어든다. 이에 비해 자연현상을 개념적으로 상징화시킨 어휘는 양적(73.6%)으로도 많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¹⁴⁾.

⑤ 치료도구 구체어(concrete words of medical devices) ; 『黃帝內經·素問』전체 내용 가운데 치료도구 구체어로 분류된 267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鍼(65), 針(2), 鍼石(10), 鑿石(2), 微鍼(1), 短鍼(1), 一鍼(1), 二鍼(1), 三鍼(1), 四鍼(1), 五鍼(1), 六鍼(1), 七鍼(1), 八鍼(1), 九鍼(10), 刺(3), 鍼灸(1), 石(2), 毫鍼(1), 繆刺(10), 巨刺(2), 砭石(7), 鍼艾(1),

14) 六氣 類의 개념어들은 그 자체로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용어, 병리적 용어, 생리적 용어, 경락, 삼음삼양의 성질을 표상하는 용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灸(37), 刺灸(1), 火灸刺(1), 溫灸(1), 灸刺(1), 藥(9), 毒藥(10), 湯液(9), 醪醴(3), 良藥(1), 醪酒(1), 湯熨(1), 百藥(1), 毒(10), 厚藥(1), 薄藥(1), 藥食(30), 湯藥(1), 按摩醪藥(1), 導引服藥(1), 按(3), 浴(2), 汗(1), 雞矢醴(1), 烏鰂骨(1), 一蘆茹(1), 鮑魚汁(1), 澤瀉朮各十分(1), 藥銜五分(1), 養生(1), 導引按蹻(2), 從容形法(1), 祝由(3)

치료도구 구체어의 내용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치료도구는 鍼으로 65회였다. 연관된 유사 표현을 합치면 모두 125회였다. 그 다음으로는 灸가 연관된 유사 표현을 합치면 모두 42회였다. 藥과 연관된 표현은 모두 78회였으며 가장 많은 어휘는 藥食으로 30회 등장했다.

⑥ 공간 구체어(concrete words of space) ; 『黃帝內經·素問』전체 내용 가운데 공간 구체어로 분류된 2459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上, 下	; 1165(47.4%)
b. 內, 外	; 405(16.5%)
c. 左, 右	; 242(9.8%)
d. 東, 西, 南, 北	; 76(3.1%)
e. 榮, 衛	; 127(5.2%)
f. 遠, 近	; 84(3.4%)
g. 表, 裏	; 60(2.4%)
h. 前, 後	; 182(7.4%)
i. 深, 淺	; 53(2.2%)
j. 三部, 九候	; 34(1.4%)
k. 中央	; 18(0.7%)
l. 高	; 13(0.5%)

『素問』에 등장하는 공간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는 上, 下, 內, 外, 左, 右, 東, 西, 南, 北, 榮, 衛, 遠, 近, 表, 裏, 前, 後, 深, 淺, 三部, 九候, 中央, 高等이다. 공간을 나타내는 개념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上下이다. 유사한 공간개념을 공유하는 內外(16.5%)와 榮衛(5.2%), 表裏(2.4%)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도 上下(47.4%)의 頻度에 미치지 못한

다. 이처럼 上下는 『素問』의 공간인식에서 절대적 위상을 갖는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하의 질적 공간 개념은 한의학의 임상에서 약물의 맛과 기운의 공간적 이동을 결부시켜 운용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¹⁵⁾.

⑦ 시간 구체어(concrete words of time) ; 『黃帝內經素問』 전체 내용 가운데 시간구체어로 분류된 772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사계절을 나타내는 개념어들 ; 373(48.3%)
예) 春, 夏, 秋, 冬
- b. 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어 ‘時’ ; 271(35.1%)
- c. 오운육기의 시각을 나타내는 개념어들 ; 59(7.6%) 예) 水下一刻, 八十七刻半
- d. 하루의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어들 ; 35(4.5%)
예) 黃昏, 平旦, 朝夕
- e. 일년 간의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어들 ; 34(4.4%) 예) 正月, 二月, 三月

한의학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은 특별하다. 분석한 전체 79편 중 49편에서 시간구체어가 꾸준히 등장할 만큼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素問』에서 시간은 공간의 변화를 주도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연과 인체에 발생하는 모든 변화현상의 의미를 시간이 결정 한다¹⁶⁾.

『素問』 전체에서 고르게 다빈도로 등장하는 시간 개념은 春夏秋冬(48.3%)과 時(35.1%)이다. 계절의 기후변화를 우주적 관점에서 체계화 시킨 것이 五運六氣의 시간개념(7.6%)이다. 아울러 하루(4.5%) 또는 일년의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4.4%)들이 나타나는 것은 또한 한의학의 시간개념이 여환무단(如環無端)한 순환의 매듭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五運

六氣의 관념은 이런 천문을 통해 세부를 구성함에 있어 현대의 시각에서도 감탄해 마지않을 정밀한 천문관찰 수준과 수리적 계산을 동원하고 있다¹⁷⁾.

⑧ 오감 구체어(concrete words of sense) ; 『黃帝內經素問』의 전체 내용 가운데 오감구체어로 분류된 976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미각과 맛을 나타내는 개념어들 ; 606(62.1%)
예) 酸, 鹹, 甘
- b. 시각과 색깔을 나타내는 개념어들 ; 263(26.9%) 예) 黃, 黑, 青
- c. 청각과 소리를 나타내는 개념어들 ; 96(9.8%)
예) 呻, 聲, 笑
- d. 후각과 냄새를 나타내는 개념어들 ; 11(1.1%)
예) 焦, 臭, 香

『黃帝內經素問』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각에 대한 선호(62.1%)이다. 이는 시각(26.9%)이나 청각(9.8%), 그리고 후각(1.1%)에 비해 현저히 발달해 있다. 이는 『黃帝內經』이 의서이기 때문에 약미와 관련해서 감각을 훈련시킨 까닭이라 생각된다¹⁸⁾.

⑨ 맥상 구체어(concrete words of pulse) ; 『黃

17) 강진원. 알기 쉬운 역의 원리. 서울. 정신세계사. 2003. pp.143~57. ‘고대의 천문관은 하늘의 중심에 있는 북극성을 황제로 삼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28수(宿), 즉 스물 여덟 개의 별자리를 각 지방을 맡아 보는 제후로 보았습니다. 이것들의 주위를 해와 달과 오성(목, 화, 토, 금, 수)이 운행한다고 보아 이를 살펴보는 것이 옛 천문관의 기본 골격이었습니다. 28수를 해와 달과 오성이 돌되, 각 별자리의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아니면 중심이냐에 따라, 또는 그때의 별자리 색깔과 다른 별들의 위치와 색깔에 따라 계절이 바뀌고 하늘의 운세가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1년은 4계(季), 12월(月), 72후(候), 360일(日), 1440진(辰), 4320시(時)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8) 한종현, 김기영 共編譯. 한방약리학. 서울. 도서출판 의성당. 2004. pp.30~2. ‘味는 사람들이 미각기관을 통하여 일부 특정의 성분을 직접 관별해 낸 것이다. 일찍이 <淮南子修務訓>에는 “신농이 백가지 풀의 맛을 보았다.(神農嘗百草滋味)”는 기록이 있는데, 오미에 대한 인식은 입으로 맛(味)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15) 한종현, 김기영 共編譯. 한방약리학. 서울. 도서출판 의성당. 2004. p.32. ‘승강부침은 약물 자체의 성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한다. 예를 들면 升浮하는 약물은 미가 辛, 甘하고 성은 溫, 熱하며, 沈降하는 약물은 미가 酸, 苦, 鹹하고 성은 寒, 涼하다.’

16) 空間이 질적 공간으로서 기세적 개념의 원천이듯 時間은 한의학의 관념화된 모든 개념들의 원천이다.

帝內經素問』의 전체 내용 가운데 맥상 구체어로 분류된 417 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沈(40), 浮(37), 瀦(28), 大(26), 滑(24), 堅(19), 弦(16), 石(12), 實(12), 數(11), 細(10), 急(9), 搏(8), 小(8), 鉤(8), 虛(8), 鼓(7), 懸(6), 遲(5), 毛(5), 躁(5), 眞(5), 緩(5), 散(4), 滿(4), 絶(4), 疾(4), 塞(4), 長(4), 代(3), 短(3), 弱(2), 深(2), 淺(2), 踈(2), 合(2), 急(2), 熱(2), 平(2), 絃(2), 省客(2), 交漆(2), 偃刀(2), 盛(3), 代(1), 橫(1), 疎(1), 端(1), 直(1), 強(1), 溜(1), 洪(1), 靑(1), 靜(1), 微(1), 陽(1), 伏(1), 華(1), 切(1), 揣(1), 益(1), 葉(1), 驚暴(1), 火薪(1), 丸泥(1), 橫格(1), 弦纒(1), 頽土之狀(1), 丸滑不直手(1), 不直手(1) <별도구분> 眞藏脈(4), 眞藏(11), 眞脾脈(1), 眞肝脈(1), 眞肺脈(1), 眞心脈(1), 眞腎脈(1)

맥상을 나타내는 71종(眞藏脈類는 하나로 취급함)의 개념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언급되는 맥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후대에 정립된 28脈 가운데 『素問』에서 나타나는 脈象은 沈(40), 浮(37), 瀦(28)¹⁹⁾, 大(26), 滑(24), 弦(16), 實(12), 數(11), 虛(8), 遲(5), 緩(5), 散(4), 長(4), 代(3), 短(3), 弱(2), 代(1), 洪(1), 微(1) 등이며 포함되지 않은 脈象은 堅(19), 石(12), 細(10), 急(9), 搏(8), 小(8), 鉤(8), 鼓(7), 懸(6), 毛(5), 躁(5), 眞(5), 滿(4), 絶(4), 疾(4), 塞(4), 深(2), 淺(2), 踈(2), 合(2), 急(2), 熱(2), 平(2), 絃(2), 省客(2), 交漆(2), 偃刀(2), 盛(3), 橫(1), 疎(1), 端(1), 直(1), 強(1), 溜(1), 靑(1), 靜(1), 陽(1), 伏(1), 華(1), 切(1), 揣(1), 益(1), 葉(1), 驚暴(1), 火薪(1), 丸泥(1), 橫格(1), 弦纒(1), 頽土之狀(1), 丸滑不直手(1), 不直手(1) <별도구분> 眞藏脈(4), 眞藏(11), 眞脾脈(1), 眞肝脈(1), 眞肺脈(1), 眞心脈(1), 眞腎脈(1) 등이다. 이는 『素問』시대의 맥진의 내용이 오늘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脈診이 점점 소홀해져가는 현대에 비해 당시의 맥의 구분이 더 정교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19) 瀦(거칠다, 걸끄럽다)은 28脈 중 瀦과 같은 脈象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20회 이상 언급된 다빈도 맥상 구체어는 沈(40), 浮(37), 瀦(28), 大(26) 滑(24) 등이었다. 이 가운데 大는 맥상의 크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실제 맥의 독특한 象을 묘사한 것은 沈, 浮, 滑, 瀦이다. 이는 실제 맥동의 촉지를 통해 알아 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맥상에 속한다.

脈은 경락이론에 내재한 관념과 인체의 생리현상이라는 실체를 연결한다. 경맥이란 용어에서 보듯²⁰⁾, 그런 脈이 경락과 결합된 불가분의 개념이라는 점은 경락을 명백한 인체의 실체로 인식시키는데 모자람이 없다.

(2) 관념어군

① 관점어(abstract words of view) ; 『黃帝內經素問』전체 내용 가운데 관점으로 분류된 492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陰陽	; 161(32.7%)
b. 道	; 138(28.0%)
c. 四時	; 76(15.4%)
d. 天地	; 78(15.9%)
e. 五行	; 14(2.8%)
f. 五運	; 18(3.7%)
g. 生長化收藏	; 7(1.4%)

陰陽(32.4%)은 『素問』의 관념 중 가장 보편적 사유체계이다. 음양은 그 자체로 철학적 깊이와 관찰에 기초한 실증적 근거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²¹⁾. 음

20) 經脈은 經絡과 脈이 결합된 어휘지만 경락 자체와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되어 두 개념의 친연성을 보여준다. 경락은 음양, 오행, 삼음삼양, 육기 등 다양한 관념체계의 결합이론인 반면, 맥은 인체의 특정 부위에서 촉지되는 심장의 박동 상태이다. 심박동의 촉지된 象이 위의 결합된 관념들의 실증적 양태를 반영한다는 논리로부터 經脈의 실체가 생겨났다.

21) 박재주. 주역의 생성 논리와 과정철학. 서울. 도서출판 창계. 1999. p.308. '음과 양은 상보적 극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기도 한다. 첫째, 음양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가진다. 만물은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형태는 그것을 구성하는 기가 없이 형성될 수 없다. 반면에 기 또한 어떤 형태를 갖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는

양은 그 자체로도 많이 다루졌지만(32.7%) 여러 의학적 이론에서 다양한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변용되었다. 陰陽이라는 단일한 어휘 이외, 陰, 陽으로 나뉘어 사용된 빈도는 훨씬 더 많았으며(500회) 삼음삼양으로 변용된 경우(776회)까지 합치면 그 횟수는 1,437회로 동류인 여타의 개념어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陰陽을 통해 변주되는 상대적 관점의 사유 패턴(pattern)은 한의학의 모든 임상적 기법을 탄생시켰다. 그런 점에서 陰陽은 모든 유기체적 관념의 모태이다. 그러므로 한의학을 ‘陰陽五行의 의학’이라 부르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素問』에 등장한 빈도수의 현저한 차이에서 보듯 陰陽(1,437회)과 五行(14회)은 그리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다. 개념의 성격에서도 이 두 개념은 완전히 이질적이며 다른 방식으로 전개 된다²²⁾.

이에 비해 四時(15.4%)가 天地(15.9%), 五行(2.8%) 보다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농경사회의 일체 상황을 지배하여 시

정적(靜的) 미분화(未分化)의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없으며, 항상 어떤 형태로 드러나서 존재한다. 그렇게 형태로 드러나는 과정이 자연의 역동성이다. 따라서 둘째, “어무 것도 전적으로 음이거나 양이 아니다.” 모든 것은 두 가지(음과 양)이다. 각각 다른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셋째, 음양은 역동성(dynamism)을 가진 지속적인 운동을 한다. 양은 기의 형태 생성의 과정이며, 음은 형태 왜해나 일시적인 무형태(無形態)로의 회귀라는 반대의 과정이다. 성장과 쇠퇴, 삶과 죽음 등의 변화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넷째, “한 과정의 완성은 다른 과정을 시작한다.” 역은 도의 운동이다. 기가 완전히 형태를 가지면 왜해의 반대 과정이 자연적으로 시작된다. 형태 자체는 자기 생존의 정적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다섯째, 음과 양에 대한 그런 이해는 수수께끼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즉 “무엇 때문에 하나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앞의 특징들과 일관되지 않는 듯하다. 지속적인 운동과 교체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균형을 이루는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형태는 항상 창조되고 파괴되고 있다.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의 전이는 음양이 그 자신을 실현할 때만 일어나고 있다.’

22) 殷南根 저, 이동철 역. 오행의 새로운 이해.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97. ‘실제적으로 오행학설과 음양학설은 본래 두 가지 상이한 사상이자 학설이다. 전국 이전에는 양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가 전국 中期 이후에 이르러서야 양자는 비로소 점차 합류하기 시작한다. 합류하기 이전에 그들 모두 이미 각각의 이론을 형성하고 있었던 한편, 합류한 이후에도 그들 모두 자기의 상대적인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았다.’

간에 따른 현상의 해석 및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동했다²³⁾.

天地(15.9%)는 한의학의 공간적 개념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이다. 천지와 인신(人身)의 유비적 통합은 한의학을 비롯한 모든 동양학의 기본전제에 가깝다. 이는 문명의 가장 깊은 곳에 흐르는 사과의 틀(frame)로서 거대한 우주관과 그 것에 조응하는 인체관을 만들어낸다²⁴⁾.

五行(2.8%)과 五運六氣(3.7%)는 그들이 『素問』에 끼친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의외로 적게 등장하였다. 실제 『素問』을 구성하는 이론과 개념체계에서 가장 강고한 틀은 五行이다. 모든 관념어들은 각기 다른 기원을 갖고 생겨났으나 춘추전국시대와 진, 한대를 거치면서 점차 五行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²⁵⁾. 이 이론이 형성될 당시의 조건으로 볼 때, 오

23) 溝口雄三, 丸山松幸, 池田知久 편저, 김석근, 김용천, 박규태 옮김. 中國思想文化事典. 서울. 민족문화문고. 2003. pp.900~1. ‘서주西周시대에는 농사력이 時令의 요소를 갖기 시작한다(詩經 七月). 時令은 시절마다의 위치자의 당위를 규정한 政令으로서 그에 위반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災厄, 異變을 원칙으로 付記하는데, 그 사상적 근거는 天이 관장하는 시절이 그러해야 할 推移에 따른 당위를 실행하면 자연계는 빠르게 나아가며 당위의 불실행이나 非當爲의 실행은 천에 의한 재역, 이변을 초래한다는 천인상관사상이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고도의 규범성을 갖는 曆에다 時令은 법적, 종교적 요소를 더함으로써 천지만물을 포괄하는 최고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24) 김희정. 몸 국가 우주 하나를 꿈꾸다. 서울. 궁리출판. 2008. pp.24~5. ‘황로사상은 천(天)과 인(人), 곧 신성한 자연과 국가 및 인간 몸이 통일적으로 감응하는 질서 안에서 인간을 구제하려는 사상이다. 즉, 그 것은 인간 몸과 사회를 신성한 우주로 변화시키려는 전형적인 우주적 종교(cosmic religion)이다. 그 사상은 후에 중국의 우주론과 몸의 담론 안으로 재해석되어 스며들어갔다. 가장 큰 흐름의 형성은 후한시대 이후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도교였다. 한 대 유교가 국교화하면서 황로는 역사에서 점차 이름을 감추지만, 그 사상과 세계관은 이름의 스러짐과 관계없이 도교라는 대하(大河)와 한의학 전통의 주류로서 다양한 이름으로 변화되어 지속해 갔다. 위진대(魏晉代) 도교 상청파(上清派)의 체내신(體內神) 사상과 금원대 진진교(全眞敎)의 내단(內丹)사상 그리고 한의학에서 수당대(隋唐代) 운기론(運氣論)이나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의 의학사상의 저변에는 다 황로사상의 천인감응관이 자리 잡고 있다.’

25) 殷南根 저, 이동철 역. 오행의 새로운 이해.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p.97~107. 이 책에서 저자는 氣는 춘추시대, 陰陽은 戰國時代 中期, 易은 戰國時代에 각각 五行과 결합되었다고 설명한다.

행론의 객관성과 정합성은 시대의 한계를 뛰어 넘는 놀라운 것이다²⁶⁾. 실제 선대의 임상가들은 이런 관념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易은 『黃帝內經』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²⁸⁾. 그러나 『素問』 전체에 易은 13회 등장했으나 모두 쉽다, 바뀐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개념으로서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이로써 한의학이 易과는 다른 천문학적 전통과 결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²⁹⁾.

生長化收藏(1.4%)은 그 자체로 자연에 대한 관찰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변화의 형식(rule)을 보편적 양상으로 법칙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전체적으로 관념어가 등장하는 『黃帝內經』 초기의 유행한 세계관은 외면적으로는 유교의 통치하에 있었으나 그 속 깊은 흐름은 황로학(黃老學)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³⁰⁾. 『素問』에 등장하는 무수한 道(28.0%)의 개념어와 본 텍스트의 명칭에서 잘 나타나있듯 『黃帝內經素問』의 관점은 황노학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³¹⁾.

26) 余自漢 의 지음, 김기왕, 인창식, 신승호 옮김. 『黃帝內經』의 기원. 서울. 일지사. 2003. p.193.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靈樞』와 『素問』의 오행배속은 해부지식, 임상경험, 전신적 관찰, 문헌의 여러 학설, 당시 사회에 유행했던 철학사상 등의 영향을 받아 체계를 맞추어 정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다 보니 빠진 부분을 추측을 통해 보충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있게 되었다. 따라서 『靈樞』, 『素問』의 오행과 오장 등에 대한 배속관계 중 어떤 것은 건강부회에 불과하고 일부 정말 황당무계한 것도 있지만 인체의 내부장기와 체표, 그리고 인체와 자연만물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관계를 관찰하려 했던 옛 사람들의 관점은 정확한 것이었다.’

27) 李浚川 지음, 장경진, 권영규, 김남일 역. 醫易學思想.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206. ‘하간 유완소는 “오운육기(五運六氣)”학설도 역시 깊이 연구하여 “병을 인식하는 법은 그 병기를 오운육기의 변화로써 귀납하여 가히 밝게 볼 수 있다.”(素問玄機原病式 自序)라고 하였다. 심지어는 “운기를 알지 못하고 의(醫)를 구하여 잃지 않는 자는 드물다”(同上)라고 하였다.’

28) 張其成 지음, 정장현 외, 3인 공역. 한의학의 원류를 찾다. 서울. 청흥. 2008. pp.402~3. ‘주역과 『黃帝內經』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역이 『黃帝內經』보다 일찍 편찬되었으며, 『黃帝內經』의 개별 편장에 역전을 인용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주역이 『黃帝內經』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黃帝內經』에 대한 주역의 영향 가운데 더욱 중요한 부분은 사유방식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주역의 사유방식은 음양(상수) 사유방식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이것이 『黃帝內經』의 이론체계를 형성한 바탕이다.’

29) 김일권. 동양 천문 사상 하늘의 역사. 서울. 예문서원. 2007. p.6. ‘우리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이 동양의 천문사상은 하늘과 인간의 질서체계가 서로 유기적인 상응관계에 놓여 있다는 ‘천인감응(天人感應)’적 사유 형식을 기반으로 삼는다. 인간 사회의 질서를 다루는 분야를 ‘인문(人文)’이라 할 때, 그에 대응하여 하늘의 질서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를 우리는 ‘천문(天文)’이라 가름한다. 고대 동양의 우주론적 세계관이 이 두 영역을 분리하지 않은 채 하나의 상관물로 여김으로써, 인간의 여러 가지 측면을 천문의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하려 하였다.’

② 관념어(abstract words of idea) ; 『黃帝內經素問』의 전체 내용 가운데 관념어로 분류된 2,940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五運六氣의 개념어들 ; 999(34.0%) 예) 丙辰, 丙戌
- b. 三陰三陽의 요소를 나타내는 개념어들 ; 776(26.4%) 예) 太陽, 陽明, 厥陰
- c. 陰, 陽 ; 500(17.0%)
- d. 五行의 각 요소를 나타내는 개념어들 ; 345(11.7%) 예) 木, 火, 土
- e. 天, 地 ; 320(10.9%)

『素問』을 지배하는 관념적 개념은 陰, 陽, 三陰,

30) 김일권. 동양 천문 사상 인간의 역사. 서울. 예문서원. 2007. p.19.

전한시대 초 유가가 주나라의 예의제도를 이상적인 표준으로 삼고자 하였지만, 전한시대를 통틀어 실제로 크게 운용된 것은 그와 다소 이질적이었던 황로학적인 흐름이다.’

31) 김교민 박석준 외. 동양철학과 한의학(Oriental Medicine and Philosophy). 서울. 아가넷. 2003. p.54. ‘황노지학이란 전국에서 한초(漢初)에 활동한 도가 중 황노학파의 학설을 말한다. ‘직하의 황노지학’이라고 하면 직하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도가 학파의 하나를 가리킨다. 전국 중기 이후에 ‘황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많은 학파가 나왔는데, 이 중 황노지학파는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다. 당시에는 황노를 존중하여 이에 가탁하여 저술하는 풍조가 있었다. 이런 책 중 『黃帝內經』을 제외하고는 모두 망실(亡失)되었다. 다만 마왕퇴 한묘에서 나온 <경법(經法)>, <십육경(十六經)>, <칭(稱)>, <도원(道原)> 네 편이 <황제사경(黃帝四經)>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三陽, 天, 地, 木, 火, 土, 金, 水, 그리고 五運六氣를 구성하는 각론의 개념요소 등으로 비교적 鮮明하게 구분된다. 관념어들 가운데 陰, 陽과 天, 地는 자연 현상에 대한 소박한 관찰의 결과로 얻어진 관념들로서 여전히 유물론적이고 유기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五行과 오운육기의 세부 요소들은 유물의 성질이 탈색된 강한 관념적 성격을 띤다³²⁾. 三陰三陽은 이와 같은 관념적 요소들이 음양의 성질을 관념화시킨 뒤에 나타나는 복합된 결과물에 속한다. 관념적 성향을 가진 개념어의 등장은 2,120회(72.1%)로 유물적 성향의 개념어 820회(27.9%)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오운육기의 관념은 『素問』을 근저에서 지배하는 원리이다³³⁾. 이는 천문과 점성과 정치를 관통하는 제정일치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관념체계였다³⁴⁾. 그 관념성으로 인해 인체는 소박한 유물성의 전통을 상실하고 우주적인 관념의 영향 하에 조밀하

게 조직화된다³⁵⁾.

陰, 陽은 음양의 관점이 각각의 속성으로 진화한 개념어들이다. 관찰에 의해 정립된 음, 양의 방법론적 인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³⁶⁾.

오행의 각 요소인 木, 火, 土, 金, 水는 『素問』의 각론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다섯 개의 원형(archetype)이다. 오행의 생극이론은 한의학의 개념 체계에 등장하는 모든 관념과 유물을 재편시키는 힘을 지닌다. 이는 과학적 관점에서 오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으로 오늘날 한의학의 이론적 교착(deadlock)에 있어 가장 핵심적 문제에 해당한다³⁷⁾.

天和 地의 관념은 인간의 농경정착과 위계질서가 완료되기 전에 태동하였을 것이다³⁸⁾. 天은 동북아시아

32) 梁啓超, 馮友蘭 외 지음,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서원. 1993. pp.300~4. '전국시대 음양오행의 사상체계에서 이른바 음양오행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이었다.....' 최초의 음양오행은 유물적이고 변증법적인 관념.... 질병이 귀신의 재앙. 신의징벌 때문에 일어난다는 미신을 타파하였다.' 이처럼 음양과 오행 등의 관념들은 개념성립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완전히 관념적 색채를 띠게 된 것은 유물적 본질보다 원리적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33) 김일권. 동양 천문 사상 하늘의 역사. 서울. 예문서원. 2007. p.7.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에 대한 해석은 인간 삶의 방식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여 왔다. 존재론에서 보자면, 하늘은 인간 삶의 의미와 그가 존재하는 주변세계를 해석하는 총체적인 배후, 곧 인간과 우주에 대한 총합적인 신념체계, 이른바 우주론(cosmology) 또는 세계관(worldview)을 의미한다. (윤이흠. 천사상의 종교적 의미. 유교사상연구 4.5집, 유교학회 1992에서 再 引用)

34) 溝口雄三, 丸山松幸, 池田知久 편역, 김석근, 김용천, 박규태 옮김. 中國思想文化事典. 서울. 민족문화문고. 2003. p.936. '대우주인 하늘과 소우주인 인간은 음양 오행을 공통의 質料因으로 삼아 상관적 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들의 介在하여 서로 감응하게 된다. 특히 천명을 받은 人君의 경우 그 감응은 긴밀해서 失政이 그대로 災異로서 천문현상에 나타난다. 그러한 국가적 의미에서의 천인의 상관관계를 넓은 의미의 천문현상에 입각해 하나하나 전개한 것이 이른바 천문이다. 하지만 천인의 감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천과 인의 각 요소가 정확하게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대응관계를 말한 것이 관료계에 비견한 星官 시스템과 分野說 이다.'

35) 박영환, 박경남, 맹용재. 28 宿에 대한 考察:內經과 類經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7. 20. p.168. '천문관측의 기록은 적어도 BC 3000년경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28宿 은 BC 2500년경 三皇五帝시절에 거의 완성되어 전해 내려왔으며, 적어도 詩經이 저작될 시기에는 누구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어 융성기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36) 이충열 외 5인. 음양이론의 객관적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the study for establishment of objective indices on Yin-Yang theory). 한국한의학연구원. 1999.

37) Jacqueline Filshie, Adrian White, 민병일 감수, 김지훈 외 3인 譯.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 medical acupuncture(a western scientific approach). 서울. 대한추나학회출판사. 2001. p.412. '침술을 비난하는 현대인들의 주 표적이 되었던 것은 가나 음양이 아니라 오행과 '오행의 법칙'이다. 그 이유는 가나 음양은 다양한 각 개인의 병리학적 상황에 대해 적용 가능하도록 발전하였으나 오행 법칙은 상정적인 상호관계(또는 체계적 상응)의 원칙에 따라 생리적, 병리적 관계를 과도히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38) 李澤厚 지음, 정병석 옮김. 중국고대사상사론. 서울. 한길사. 2005. p.608. 대개 오래 전 신석기 농경시대 이래로 '천인합일' 관념은 인간이 사계절과 기후변화, 지형과 수리(水利)의 '천시'(天時)와 '지리'(地理)라는 자연에 순응하여 생존하고 발전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진정한 노예제 통치를 형성하지 못했고, 인간들이 절대적인 신권이나 절대적인 왕권에 복종하는 현상 역시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원시 씨족체제 아래의 경제, 정치구조와 혈연종법제도는 씨족과 부락내부에 일종의 자연적 조화관계('인화')인지는 곧 원시적인 인도, 민주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대체로 '천인합일'(인간과 자연, 개체와 공동체의

아의 문화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어휘에 속한다. 이는 자연의 주재자이자 인간의 운명을 함께 의미한다³⁹⁾. 천인상응, 혹은 천인합일은 앞서 언급된 관점과 관념의 개념과 어휘를 아우른다⁴⁰⁾.

③ 관념 결합어(combined words of idea) ; 『黃帝內經素問』의 전체 내용 가운데 관념결합어로 분류된 1764 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장부의 각 요소를 나타내는 개념어들 ; 988(56.0%) 예) 肝, 心, 脾
- b. 개념어 五臟, 六腑 ; 257(14.6%)
- c. 經絡을 나타내는 개념어들 ; 357(20.2%) 예) 手少陰, 足陽明, 足厥陰
- d. 五行과 다양한 개념어의 결합 ; 132(7.5%) 예) 五陽, 五勞, 五惡
- e. 기타 관념과 결합한 개념어들 ; 37(2.1%) 예) 開, 闔, 樞

인체의 생리적 체계로서 개념적 사유와 결합하여

순중 적응의 협조관계) 관념의 현실적 역사의 기초를 탄생시켰다.

- 39) 李澤厚 지음, 정병석 옮김. 중국고대사상사론. 서울. 한길사. 2005. p.608. ‘上古時代에서 오늘날까지 한자의 일상적 활용 가운데 ‘천(天)이란 개념에는 결정된 운명이나 주재의 뜻과 자연의 의미라는 두 가지 단계의 합의가 줄곧 존재해왔다. 고대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구분되지 않았다.’
- 40) Benjamin Schwartz 저, 나성 옮김.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서울. (주)살림출판사. 2004. pp.533~4. ‘사실상 이 사유 방식은 진의 혁명에서 살아남아 전한(前漢 B.C. 200년~A.D. 1세기)에 그 영향력이 절정에 이르고, 이어지는 중국 “자연 철학”의 전체 발전에 영속적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것은 뒤에 가서 사마담의 경학서지학에 의해 음양가라는 이름 아래 “육가(六家)의 하나로 취급된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천인지제(天人之際)”의 교의라고 기술되는데, 아마 이것이 더욱 정확할지도 모른다. 영어 술어를 찾으면서, 비록 “correlative anthro-pocosmology(상관적 인간 우주론)”가 더욱 정확할지 모르지만, 나는 “correlative cosmology(천인감응 우주론)”을 선택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룬 대부분의 다른 사상적 흐름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당시의 보편적 담론들에서 폐기처분되지 않았으며, 매우 복잡한 방식을 통해 당시 모든 주도적 경향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한의학의 이론체계를 형성하는 관념결합어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五臟의 다섯 臟들(56.0%)이다. 여기에 오장, 육부의 개념어(14.6%)를 합치면 70.6%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경락의 요소들(20.2%)이다. 두 종류의 개념어를 합치면 90.8%이다. 『素問』의 가장 큰 업적은 이 두 가지 거대한 관념체계를 완성한 것이다⁴¹⁾.

肝, 心, 脾, 肺, 腎의 구성 요소들은 五行과 장기가 결합한 형태의 관념결합어이다. 經絡은 다시 五行과 三陰三陽이 체표의 방위와 결합하고 다시 臟腑와 연결된 형태의 관념결합어이다. 실증적인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관념의 해석은 비록 정교한 논리체계라 할지라도 의학의 관점에서는 냉정하게 도려내어야 할 군더더기에 불과하다⁴²⁾. 경락론의 경우 그 형성과정에서 선과 점의 우위에 관한 쟁점은 이러한 복합이론이 하나의 관념이나 경험에 의해 단선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⁴³⁾.

- 41) 加納喜光. 몸으로 본 중국 사상(중국의학의 탄생). 서울. 도서출판 소나무. 1987. pp.125~34. ‘경락이론의 완성은 『黃帝內經』의 큰 업적중 하나이다.’
- 42) 黃龍祥 지음, 박현국, 윤중화, 김기옥 역. 中國 鍼灸 學術史 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p.127~31. ‘중의학설의 가치는 그 속에 담긴 경험적인 사실과 규율에 있는 것이 ‘이론적인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율에 어떤 해석을 내리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고(특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으로 임상실천을 이끄는 것이야말로 경험적인 규율 그 자체이다. ...경락학설에는 주관적으로 추측하는 요소인 ‘해석’의 성질을 띤 부분이 많이 담겨 있으면서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듯이 보여 실천적인 요소가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규율’부분을 덮어버림으로써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심할 바 없이 경락학설을 실험연구하려면 먼저 이 학설 속에 숨어 있는 ‘규율’부분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벗겨내고, 옛 사람들이 귀납시킨 이러한 규율에서 의거한 ‘사실’을 엄격하게 점검하여 그 실천적인 함량을 명확하게 밝혀내어야 한다.’
- 43) 周一謀 저, 金南一, 印昌植 共譯.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p.33~4. ‘1950년대에 침구학자 옥수연은 경락학설은 같은 효능을 가진 침구혈위들을 귀납해 연결하는 것에서 기원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고대의학자들은 장기간의 침구입상을 통해 점차 여러 혈위에 비슷한 효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근처에 있는 혈위들끼리 연결시켜 경락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으로’의 관점은, 침구술은 신석기 시대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발명되었

肝, 心, 脾, 肺, 腎의 개념어 외에 별도로 五臟과 六腑라는 어휘가 빈번히 등장(14.6%)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행과 기타 개념어의 결합은 五行의 왕성한 결합력을 보여준다. 『素問』에 언급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五味, 五色, 五脈, 五氣, 五精, 五液, 五陽, 五勞, 五并, 五惡, 五邪, 五禁, 五病, 五入, 五主, 五勞, 五發, 五亂, 五邪, 五病, 五決, 五中, 五診, 五化, 五類, 五穀, 五果, 五畜, 五宜, 五菜, 五度, 五日, 五實, 五虛, 五宮, 五常, 五位, 五歲, 五歲, 五星, 五過, 五勝, 五形志, 五音, 奇恒五中, 五音, 五聲.....

여기에는 무엇보다 상생상극의 원리가 정형화되어 있다. 이것은 五의 數개념에서 가장 이상적 형태로 작동 한다⁴⁴⁾. 장부변증은 『素問』과 『靈樞』에서 적지 않게 언급되었으며 후대의 임상가들에 의해 虛實과 같은 진단의 방법론과 결합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⁴⁵⁾.

으므로 혈위 역시 상당히 이른 시기에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또 이 관점은 ‘개별에서 일반으로, 특수에서 보편으로, 국부에서 전체로’라는 인식론 법칙과도 일치하여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馬王堆 의서가 출토되자 사람들은 이 새로운 자료에 11맥의 순행노선은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면서도 혈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는 데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경락의 발견이 ‘집에서 선으로’ 이루어졌다는 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학계에서는 ‘집에서 선으로’의 관점에 상반되는 ‘선에서 집으로’의 관점과 ‘점과 선의 병존’관점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44)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07. p.100. ‘구성요소의 수가 넷일 때와 다섯일 때 그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의 종류와 수도 큰 차이를 보인다. 원소가 넷일 때는 원소들 간의 개별적 관계와 비율이 중요하지만 다섯일 때는 상생과 상극, 역상생과 역상극 등 다양한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개별적 관계가 아닌 그 관계들이 조직되는 패턴이 중요해진다.’

45) 陳大舜, 曾勇, 黃政德 저, 맹용재 외 9인 옮김. 各家學說(中國篇). 경기도. 대성의학사. 2004. p.134. ‘장부변증설은 내경에서 기원하였다. 素問에서도 이미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靈樞에서도 적지 않게 언급하고 있다. <邪氣臟腑病形> <經脈> <經筋> <本藏> 등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後漢의 華佗의 <中藏經>은 그것들을 종합하여 오장육부의 虛實寒熱生死逆順脈證之法 11편을 만들었다. 당의 孫思邈은 <千金要方>을 저술하여 다시 장부의 허실병증을 분류하여 수십 편의 글을 썼다. 宋代의 錢乙은 소아약증직결을 저술하였는데 역시 한열허실로 오장의 병증을 분석하고 있다.’

④ 물질 결합어(combined words of material) ; 『黃帝內經素問』의 전체 내용 가운데 물질 결합어로 분류된 3079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氣 ; 1,789(58.1%)
- b. 血 ; 313(10.2%)
- c. 神 ; 103(3.3%)
- d. 精 ; 129(4.2%)
- e. 脈 ; 647(21.0%)
- f. 穴 ; 68(2.2%)
- g. 象 ; 30(1.0%)

물질 결합어는 『素問』79개의 조문 전체에서 고르게 발견된 유일한 개념어였다. 이 물질 결합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개념은 氣(58.1%)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특히 氣는 단일 개념으로 『素問』에서 가장 많이 등장(1789회)하는 어휘였으며 이처럼 기타 개념과 氣가 결합한 형태의 종류는 다음과 같았다.

眞氣, 形氣, 精氣, 神氣, 秋氣, 冬氣, 春氣, 夏氣, 長夏氣, 天氣, 地氣, 人氣, 陽氣, 陰氣, 血氣, 脈氣, 惡氣, 邪氣, 淫氣, 暴氣, 逆氣, 厥氣, 瘡氣, 癰氣, 病氣, 鬱氣, 殺氣, 衛氣, 營氣, 榮氣, 經氣, 熱氣, 風氣, 濕氣, 寒氣, 燥氣, 溫氣, 寒溫氣, 土氣, 火氣, 水氣, 金氣, 木氣, 多氣, 少氣, 酒氣, 藥氣, 穀氣, 上氣, 中氣, 下氣, 內氣, 生氣, 長氣, 化氣, 收氣, 藏氣, 黃氣, 白氣, 黑氣, 赤氣, 三氣, 四氣, 九氣, 六氣, 五氣, 清氣, 濁氣, 雨氣, 俞氣, 雷氣, 谷氣, 積氣, 明氣, 閒氣, 動氣, 胞氣, 平氣, 巨氣, 宗氣, 胃氣, 行氣, 大氣, 正氣, 今氣, 炁氣, 腎氣, 陳氣, 肌氣, 正月陽氣, 三百六十五節氣, 稟氣, 兩氣, 浮氣, 正氣, 客氣, 同氣, 七百二十氣, 千四百四十氣, 本氣, 夫氣, 其氣, 歲氣, 蒼氣, 民氣, 初之氣, 二之氣, 三之氣, 四之氣, 五之氣, 終之氣, 氣交, 氣熱, 氣專, 氣濕, 氣立, 氣血, 氣門, 氣衰, 氣壯, 氣下, 氣中, 氣外, 氣化, 氣味, 氣變, 氣勝, 氣血, 氣穴, 司氣, 間氣, 居氣, 主氣, 客氣

血(10.2%), 神(3.3%), 精(4.2%)은 각자 개념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氣의 관점에서 인체의 물질요소가 변용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물질개념들이 臟腑와 연결되어 특정 기능에 배속된 물질체

럼 거론되기도 하지만⁴⁶⁾ 실제 진단, 치료의 관점에서서는 관념적 臟腑의 구속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氣, 血, 神, 精의 가장 많이 등장한 물질개념어는 脈(21.0%)이었다. 脈은 氣를 제외한 다른 물질 결합어보다 더 많이 등장했다. 이는 『素問』에서 脈이 특별히 중요하게 취급되었음을 보여준다.

⑤ 이중 결합어(double combined words) ; 『黃帝內經素問』의 전체 내용 가운데 이중 결합어로 분류된 268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장부와 기혈이 결합한 개념어들 ; 81(30.2%)
예) 肝氣, 心血, 胃氣
- b. 장부와 맥이 결합한 개념어들 ; 64(23.9%)
예) 心脈, 肺脈, 脾脈
- c. 경락과 맥이 결합한 개념어들 ; 111(41.4%)
예) 厥陰脈, 任脈, 太衝脈
- d. 경락과 기혈이 결합한 개념어들 ; 12(4.5%)
예) 絡氣, 絡血, 氣絡

『黃帝內經素問』에서 발견되는 이중 결합어 가운데 경락과 맥이 결합한 형태가 가장 많았다(41.4%). 장부와 맥의 결합(24.9%)에서 장부가 12경락에 연결된 장부를 의미한다고 보면 경락을 중심으로 맥과 결합한 경우는 66.3%에 달한다. 맥에 대한 강조는 기혈이 경락과 결합하는 빈도(4.5%)와 비교할 때 뚜렷해진다. 그 다음으로 빈번한 이중 결합어는 장부와 기혈이 결합한 형태이다(30.7%).

⑥ 제어어(abstract words of control) ; 『黃帝內經素問』의 전체 내용 가운데 제어어로 분류된 2733개의 어휘를 추출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물질의 계량적 편차를 표현하는 개념어들 ; 829회(30.3%)
虛(149), 盛(104), 不足(74), 實(69), 有餘(60),

衰(51), 少(44), 多(40), 盡(13), 積(29), 不及(44), 絕(39), 太過(38), 滿(31), 竭(13), (기타) 消, 耗, 亡, 壯, 痿, 切, 脫, 耗, 壞, 去, 增, 外榮, 缺, 短, 減, 渴, 日損, 內奪, 餘

b. 물질의 질적 변화(성질, 현상의 변화양상)를 표현하는 개념어들 ; 93회(3.4%)

清(7), 濁(6), 明(6), 化(13), 熱(9) 기타) 薄, 厚, 寒, 溫, 菀, 燥, 靜, 躁, 熏, 凍解, 涼, 菀熟, 熏, 淖, 淖澤, 脹, 隆, 拂, 癰, 菀熟, 癰發, 癰發, 微, 變物, 燔, 潔, 沸溢, 淒滄, 煩寬, 始冰, 消燂, 瘦, 燥, 密, 強, 弱, 剛強, 冒明, 內變, 脹

c. 물질의 동적 변화(발생, 위치, 이동, 방향)를 표현하는 개념어들 ; 1133회(41.5%)

生(143), 上(74), 通(67), 逆(75), 藏(62), 行(57), 入(55), 發(54), 下(41), 出(38), 從(30), 散(25), 動(24), 厥(20), 起(20), 留(18), 泄(17), 亂(16), 溢(23), 凝(14), 歸(13), 布(11), 閉(10), 急(10), 結(9), 浮(8), 走(7), 搏(7), 收(7), 不利(6), 高(6), 流(6), 緩(6), 遷(6), 聚(6), 歸(6), 降(5), 長(5), 舉(4), 擾(3), 循(3), 移(3), 注(3), 收(2), 鬱(8), 固(2), 後(2), 前(2), 外(2), 會(2), 肅(2)

기타) 聚, 離, 注, 揚, 滯, 達, 著, 壅, 凝, 伐, 奪, 伏, 傾, 屈, 騰, 深, 還, 湊, 奉, 循, 擾, 騰, 臨, 迫, 輸, 靜, 深, 肅, 伏, 隆, 還, 環, 疾, 悍, 集, 寫, 濡, 變, 理, 輸, 達, 沈, 始, 遊, 迫, 遠, 隨, 孤, 內著, 暴薄, 易寫, 傾移, 不離, 不長, 內伐, 往復, 波蕩, 崩潰, 復崩, 內著, 升降, 不轉, 退辟, 往復, 始閉, 不過, 否隔, 交流, 離守, 行瀉, 外連, 急沈, 內著, 遂抑, 不居, 下輸, 不濡, 急疾, 標悍, 相離, 獨沈, 離決, 內洞, 不進, 當隔, 不往來, 不往來, 不能止, 不能止

d. 기운의 세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거나 위축 및 경쟁 또는 화해양상을 표현하는 개념어들 ; 399회(14.6%)

勝(239), 交(19), 平(18), 合(17), 薄(14), 和(13), 惡(9), 食(6), 爭(5), 合(5), 殺(4), 平均(3), 搏(3), 制(3), 反(3), 相感(3), 奪(2), 折(2)

기타) 和同, 相襲, 不襲, 相持, 相錯, 相失, 爭不得出, 內奪, 不政, 不令, 襲, 薄, 伏沈, 相錯, 不政, 不衡, 通合, 始殺, 復反, 不令, 不衡, 頗, 抑, 相得, 不

46) 楊維傑 編. 黃帝內經 譯解. 서울. 成輔社. 1980. p.456. 調經論篇 第六十二 '心藏神, 肺藏氣, 肝藏血, 脾藏肉, 腎藏志'

相得, 不相保, 內却, 却, 劫疎, 拒, 去

e. 물질과 현상에 대한 통제(기능, 치료)를 표현하는 개념어들 ; 226회(8.3%)

補(43), 寫(58), 泄(14), 收(13), 堅(8), 發(7), 稟(7), 復(6), 稟(5), 緩(7), 統(5), 正(4), 引(3), 散(4), 燥(4), 潤(4), 熱(3), 寒(3), 削(3), 溫(2), 下(2), 通(2), 不寫(2), 行(2), 기타) 汗, 開, 絕, 抑, 舉, 折, 益, 利, 除, 攻, 平, 濡, 養, 按, 復, 達

f. 기타 개념어들 ; 53회(1.9%)

中(15), 承(6), 欲(5), 乘(4), 立(2), 成(2), 持(2)

기타) 主, 嘯, 傾, 美, 干, 央, 朝, 陽, 勞, 津, 遭, 泣, 浴, 秘, 客, 鼓, 處

전체 제어어 가운데 a. 물질의 계량적 편차를 표현하는 어휘(829회 30.3%)와 c. 물질의 동적 변화(발생, 위치, 이동, 방향)를 표현하는 어휘(1,133회 41.5%)가 합쳐서 1,962회(71.8%) 등장하여 수적으로 절대적이었다. 질적 편차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⑦ 수리어(abstract words of number) ; 『黃帝內經素問』의 전체 내용 가운데 수리어로 분류된 969개의 개념어를 추출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숫자 1을 나타내는 수리어 ; 18+25(삼음삼양)= 43(4.4%)⁴⁷⁾

b. 숫자 2를 나타내는 수리어 ; 22+23(삼음삼양)= 45(4.6%)

c. 숫자 3을 나타내는 수리어 ; 49+62(삼음삼양)= 111(11.5%)

d. 숫자 4를 나타내는 수리어 ; 38+76(四時)= 114(11.8%)

e. 숫자 5를 나타내는 수리어 ;

18+20(五味)+128(五臟)+18(五運)+19(五氣)+19(五行)= 322(33.2%)

f. 숫자 6을 나타내는 수리어 ; 34+10(六

氣)+33(六腑)= 77(7.9%)

g. 숫자 7을 나타내는 수리어 ; 24 (2.5%)

h. 숫자 8을 나타내는 수리어 ; 28 (2.9%)

i. 숫자 9를 나타내는 수리어 ; 45+14(九竅)= 59(6.1%)

j. 숫자 10을 나타내는 수리어 ; 0

k. 숫자 11을 나타내는 수리어 ; 1(0.1%)

l. 숫자 12를 나타내는 수리어 ; 22(2.3%)

m. 숫자 13이상 99이하를 나타내는 수리어 ; 23(2.4%)

n. 숫자 100이상을 나타내는 수리어 ; 18(1.9%)

o. 숫자를 의미하는 개념어 ‘數’ ; 82 (8.5%)⁴⁸⁾

『素問』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수는 五이다. 5는 총 322(33.2%)회 언급되었으며 이 가운데 128회는 五臟이라는 개념어였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수는 三과 四였으며 각각 삼음삼양, 사시로서 각각 110회와 76회를 기록했다. 이 중, 삼음삼양은 각각의 세분화된 음양의 횟수를 포함하므로 단일 개념어로 오장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수리어는 四時이다. 이는 『素問』을 관류하는 수의 개념이 四, 五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素問』(79편⁴⁹⁾) 중에서 개념적 수로서 五가 등장하는 것은 모두 54편(68.4%)이다. 반면 四가 등장하는 것은 모두 33편(41.8%)이다. 四와 五 중 하나라도 등장하는 것은 57편으로서 전체의 72.2%, 수리어가 등장하는 64편 중 89.1%에 해당한다. 四와 五가 동시에 등장하는 편은 33편으로서 전체의 41.8%, 수리어가 등장하는 64편 중 51.6%에 달했다.

2. 『黃帝內經素問』의 논지에 따른 개념적 맥락의 분석

<1> 논지 분류

1) 논지의 구성

논지의 개념적 맥락은 (1) 논지의 주제 (2) 내용 (3) 근거로 구성된다.

47) 이하 수의 비율은 구체적 數를 나타내는 개념어의 수(848)에 대한 비율이다. (즉, 개념어 ‘數’를 제외한 전체 합계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48) 개념어 數의 비율은 전체 925에 대한 비율이다.

49) 72, 73편은 제외.

2) 분류 항목

(1) 문장구분 (2) 항목분류 (3) 주제의 성격 (4) 내용의 성격 (5) 근거의 성격 (6) 주요 개념어

3) 항목분류의 세부 포함내용

(1) 기초원리 (2) 기본개념 (3) 생리 (4) 진단 (5) 예후 (6) 병증병기 (7) 치료원리 (8) 치료방법 (9) 치료기술 (10) 오진오처 (11) 양생법 (12) 금기사항 (13) 일반의론

<2> 논지 분류의 내용

『黃帝內經素問』을 개념적 맥락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조문은 총 1022 개였다. 그 가운데 「一般篇」이 682 조문, 「運氣七篇」이 340 조문이었다. 『素問』1편 - 65편까지 ; 조문번호 1 - 646번 총 646개, 『素問』75편 - 81편까지 ; 조문번호 987 - 1022번 총 36개, 『素問』66편 - 74편(운기편) ; 조문번호 647 - 986번 총 340개, 합계 ; 682+ 340 = 1,022조문.

<3> 논지 분류의 결과

1) 항목별 분류의 결과

「一般篇」 682조문	「運氣七篇」 340조문	『黃帝內經素問』 1022조문
①병증병기 250	①기본개념 301	①기본개념 483 조문 (182+301)
②기본개념 182	②치료방법 34	②병증병기 264 조문 (250+14)
③치료방법 101	③병증병기 14	③치료방법 135 조문(101+34)
④진단 86	④치료원리 18	④진단 89 조문(86+3)
⑤치료원리 44	⑤진단 3	⑤치료원리 62 조문(44+18)
⑥일반의론 33	⑥일반의론 1	⑥일반의론 34 조문(33+1)
⑦기본원리 10		⑦기본원리 10
⑧양생 7		⑧양생 7
⑨오진오처 6		⑨오진오처 6
⑩금기사항 4		⑩금기사항 4
⑪치료기술 3		⑪치료기술 3
⑫예후 3		⑫예후 3

⑬생리 1		⑬생리 1
합계 : 730항목(682조문+중복 산정된 ⁵⁰⁾ 48개의 조문 = 730	합계 ; 371 항목	합계 1101 조문 (항목별 중복산정 포함)

소단위의 주제와 내용,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이뤄진 『黃帝內經素問』의 條文은 총 1022개였다. 「一般篇」은 682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運氣七篇」은 340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복수 항목을 포함하는 조문을 중복 산정한 「一般篇」 730 조문 가운데 최 다빈도 항목은 병증병기(250조문 34.2%)였다. 복수 항목을 포함하는 조문을 중복 산정한 「運氣七篇」의 371 조문 가운데 최고 다빈도 항목은 기본개념(301조문 81.1%)이었다.

2) 주제, 내용, 근거의 성격 분류의 결과

(1) 「一般篇」 682조문의 항목별 성격 분류

구체적 주제를 다룬 조문은 전체의 75.0%(548/730)를 차지했으며 관념적 주제를 다룬 조문은 24.9%(182/730)를 차지했다. 구체적 내용을 다룬 조문은 81.8% (597/730)를 차지한 반면 관념적 내용을 다룬 조문은 18.2%(133/730)를 차지했다. 구체적 근거를 다룬 조문은 46.0%(348/756)를 차지한 반면 관념적 근거를 다룬 조문은 51.3%(388/(730+26))를 차지했다. 근거가 없는 경우는 2.65% (20/756)를 차지했다.

(2) 「運氣七篇」 340조문의 항목별 성격 분류

구체적 주제를 다룬 조문은 전체의 9.97%(37/371)를 차지했으며 관념적 주제를 다룬 조문은 90.0%(334/371)를 차지했다. 구체적 내용을 다룬 조문은 49.4% (213 /431)를 차지한 반면, 관념적 내용을 다룬 조문은 50.4%(217/431)를 차지했다. 구체적 근거를 다룬 조문은 6.60%(25/379)를 차지한 반면, 관념적 근거를 다룬 조문은 91.3%(346/379)를 차지했다. 근거가 없는 경우는

50) 중복 산정된 내용이 있어 공식적 조문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표 3. 조문의 주제, 내용, 근거의 조합에 따른 문장의 성격분석 2

type	주제	내용	근거	의미	분석
1-1형	구	구	구	주제, 내용, 근거가 모두 구체적임	매우 실증적
1-2형			관	구체적 주제, 내용에 관념적 근거를 사용함	조금 비실증적
2-1형		관	구	관념적 내용에 구체적 근거를 사용함	실증적
2-2형			관	구체적 주제에 내용, 근거가 모두 관념적임	비실증적
3-1형	관	관	관	주제, 내용, 근거가 모두 관념적임	매우 비실증적
3-2형			구	관념적 주제, 내용에 구체적 근거를 사용함	조금 실증적
4-1형		구	관	구체적 내용에 관념적 근거를 사용함	비실증적
4-2형			구	관념적 주제에 내용, 근거가 모두 구체적임	실증적

표 4. 조문의 주제, 내용, 근거의 성격에 따른 개별 분석

		「一般篇」 조문수(%)	「運氣七篇」 조문수(%)	『素問』 전체 조문수(%)
주 제	구체적	548/730 (75.0)	37/371 (9.97)	585/1101 (53.1)
	관념적	182/730 (24.9)	334/371 (90)	516/1101 (46.9)
내 용	구체적	597/730 (81.8)	213/(371+60=431) (49.4)	810/(1101+60=1161) (69.8)
	관념적	133/730 (18.2)	217/431 (50.4)	350/1161 (30.2)
	내용없음	1/730 (0.1)		1/1161 (0.08)
근 거	구체적	348/(730+26) (46.0)	25/(371+8=379) (6.60)	373/(1101+14+2+18=1135) (32.9)
	관념적	388/756 (51.3)	346/379 (91.3)	734/1135 (64.7)
	근거없음	20/756 (2.65)	8/379 (2.1)	28/1135 (2.47)

2.1%(8/379)를 차지했다.

(3) 『黃帝內經素問』 전체 항목별 성격 분류

구체적 주제를 다룬 조문은 전체의 53.1%(585/1101)를 차지했으며 관념적 주제를 다룬 조문은 46.9%(516/1101)를 차지했다. 구체적 내용을 다룬 조문은 69.76% (810/1161)를 차지한 반면, 관념적 내용을 다룬 조문은 30.2%(350/1161)를 차지했다. 별 내용이 없는 조문은 0.08%(1/1161)를 차지했다. 구체적 근거를 다룬 조문은 32.9%(373/1135)를 차지했으며 관념적 근거를 다룬 조문은 64.7%(734/1135)를 차지했다. 근거가 없는 조문은 2.47%(28/1135)를 차지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黃帝內經素問』의 구체성과 관념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주제, 내용, 근거의 성격조합에 따른 의미를 판단하였다(표 3).

『素問』의 「一般篇」에서 구체적 주제(질문)를 가진 조문(75.0%) 관념적 주제(24.9%)에 비해 훨씬 많았다. 내용(답변)에서도 구체적 내용(81.8%)이 관념적 내용(18.2%)보다 많아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근거의 항목에서는 관념적 근거가 (51.6%) 구체적 근거(46.0%)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다. 「運氣七篇」에서는 관념적 주제(90%)가 구체적인 경우(9.97%)보다 훨씬 많았다. 내용은 구체적인 것(49.4%)과 관념적인 것(50.4%)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근거에서는 다시 관념적인 것(91.3%)이 구체적인 것(6.6%)을 압도했다.

전체적으로 『素問』의 전편은 주제에서는 구체성(53.1%), 관념성(46.9%)이 비슷하게 나왔으며, 내용에서는 구체성 69.8%, 관념성 30.2%로 구체적이 많았다. 그리고 근거에서는 구체성(32.9%)에 비해 관념성(64.7%)이 두 배 정도 높게 나왔다(표 4).

주제, 내용, 근거의 성격조합을 살펴보면, 먼저

주제와 내용의 조합에서 1형(구체적 주제에 구체적 체적 근거를 제시한 조문은 2개⁵⁴)에 불과했다. 1-2

표 5. 조문의 주제, 내용, 근거의 성격에 따른 분석결과

type		「一般篇」	「運氣七篇」	합계
1형	구구(없음)	19	4	23
1-1형	구구구	314	14	328
1-1(2)형	구구(구관)	14		14
1-2형	구구관	137	7	144
2-1(2형)	구관(구관)	2		2
2-2형	구관관	62	12	74
3형	관관(없음)	1	4	5
3-1형	관관관	68	141	209
4-1형	관구관	95	117	212
4-1(2)형	관구(관구)	10	8	18
4-2형	관구구	8	3	11
관(없음)관			1	1
관(구관)관			60	60
합계		730	371	1101

내용)이 46.2%(509), 2형(구체적 주제에 관념적 내용)이 6.9%(76), 3형(관념적 주제에 관념적 내용)이 19.4%(214), 4형(관념적 주제에 구체적 내용)이 27.3%(301)이었다.

주제, 내용, 근거의 3요소의 조합은 1-1형(구구구)이 342조문, 1-2형(구구관)이 158조문, 2-1형(구관구)이 2조문, 2-2형(구관관)이 76조문, 3-1형(관관관)이 209조문, 3-2형(관관구)이 0조문, 4-1형(관구관)이 290조문, 4-2형(관구구)이 89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논지의 구성 상, 실증적인 조합에 속하는 1-1형, 2-1형, 4-2형, 3-2형의 합은 433개였으며 비실증적인 조합에 속하는 3-1형, 4-1형, 2-2형, 1-2형의 합은 733개이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과 근거의 조합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조문은 371개⁵¹), 구체적인 내용에 관념적인 근거를 제시한 조문은 448개⁵²), 관념적인 내용에 관념적인 근거를 제시한 조문은 345개⁵³)였으나 관념적인 내용에 구

형(구구관)과 4-1형(관구관)처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념적인 근거가 조합된 경우는 많았지만 관념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조합된 2-1형(구관구), 4-1형(관관구)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와 근거의 조합에서 구체적인 주제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조문은 344개⁵⁵), 구체적인 주제에 관념적인 근거를 제시한 조문은 234개⁵⁶), 관념적인 주제에 관념적인 근거를 제시한 조문은 500개⁵⁷)이었으나 관념적인 주제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조문은 29개⁵⁸)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제가 구체적이든 관념적이든 상관없이 내용이 관념적이면 근거논리는 관념적이었던 것을 의미한다. 즉, 관념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주제가 관념적인 경우 근거논리가 구체적인 경우도 29회로 다른 경우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구체적 주제와 내용은 관념적 근거를 갖지만(682개) 관념적 주제와 내용은 구체적 근거를 갖지 않았다(29+2=31개). 이는 유물

54) 구관구, 구관(구,관) 2

55) 구구구 328, 구구(구,관) 14, 구관구, 구관(구,관) 2

56) 구구(구,관) 14, 구구관 144, 구관관 74, 구관(구,관) 2

57) 관관관 209, 관(없음)관 1, 관(구,관)관 60, 관구관 212, 관구(관,구) 18

58) 관관구 관구구 11, 관구(관,구) 18

51) 구구구 328, 구구(구,관) 14, 관구구 11, 관구(관,구) 18

52) 구구(구,관) 14, 구구관 144, 관(구,관)관 60, 관구관 212, 관구(관,구) 18

53) 구관관 74, 구관(구,관) 2, 관관관 209, 관(구,관)관 60

과 현상에 대한 관념적 근거에 많은 비중을 할애한 반면 관념에 관한 담론에 물질적이거나 현상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는 소홀하였음을 반증한다(표 5).

수는 1,646개였다. 그 중 다빈도 순서는 氣血(29460), 臟腑(233), 陰陽(169), 經脈(142), 經絡(140), 六氣(130), 五行(94+ 五味2), 四時(93), 三陰三陽(

표 6. 『黃帝內經素問』의 10회 이상 다빈도 개념어

다빈도순위*	종류	일반편	운기편	합계	조문점유율	개념어점유율
1 (3)	氣血	294	151	445	43.5%	16.5%
2 (9)	臟腑	233	38	271	26.5%	10.0%
3 (5)	六氣	130	141	271	26.5%	10.0%
4 (1)	五行	96	162	258	25.2%	9.5%
5 (4)	三陰三陽	73	144	217	21.2%	8.0%
6 (8)	陰陽	169	45	214	20.9%	7.9%
7 (2)	五運六氣	13	157	170	16.6%	6.3%
8 (16)	經脈	142	7	147	14.3%	5.4%
9 (14)	經絡	140	7	147	14.3%	5.4%
10 (7)	天地	67	66	133	13.0%	4.9%
11 (12)	四時	93	13	106	10.3%	3.9%
12 (6)	星辰	6	71	77	7.5%	2.8%
13 (15)	虛實	70	6	76	7.43%	2.8%
14 (10)	道	30	23	53	5.18%	2.00%
15 (11)	數	16	14	30	2.93%	1.1%
16 (13)	氣味	16	13	29	1.56%	1.1%
17	七情	13		13	1.3%	0.5%
18(17)	時	7	3	10	1.0%	0.4%
합계		1608	1061	2669		

* 『黃帝內經素問』전체에서 다빈도 순위, 괄호안의 수는 「運氣七篇」에서의 다빈도 순위이다.

3) 개념적 맥락의 개념어 분류

『黃帝內經素問』의 79편을 1,022개의 조문으로 분류한 다음 논지의 핵심 근거로 사용된 개념어의 수는 모두 2,705개⁵⁹⁾였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一般篇」 682조문의 개념어 분류

『黃帝內經素問』의 전체 1,022 조문 가운데 「一般篇」 675조문에 논지의 근거로 사용된 개념어의

73), 虛實(70), 天地(67), 氣味(16), 道(30), 數(16), 五運六氣(13), 七情(12), 時(7), 星辰(6), 左右(6), 不及(4), 上下(4), 天癸(3), 三部九候(3), 開合樞(2), 表裏(2), 標本(2), 經隧(2), 男女(2), 補瀉(2), (이하 각 1회) 太過, 奇恒, 方位, 多少, 水火, 八情, 有餘不足이었다.

(2) 「運氣七篇」 340조문의 개념어 분류(표 6)

「運氣七篇」 347조문 가운데 등장한 개념어의 수

59) 총 합계; 「運氣七篇」의 개념어 1059개 + 「一般篇」의 개념어 1646 = 2705개.

60) 이하 괄호 안의 숫자는 개념어가 등장한 조문의 수를 나타낸다.

는 1,059개였다. 그 중 다빈도 순서는, 五行(162), 五運六氣(157), 氣血(151), 三陰三陽(144), 六氣(141), 星辰(71), 天地(66), 陰陽(45), 臟腑(38), 道(23), 數(14), 四時(13), 氣味(13), 經絡(7), 虛實(6), 經脈(5), 時(3)이었다. 이 가운데 오운육기의 이론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념어는 五行(162), 五運六氣(157), 三陰三陽(144), 六氣(141), 星辰(71), 數(14), 四時(13), 時(3) 등이다.

(기타 10회 이하 등장한 개념어) 左右(6), 不及(4), 上下(4), 天癸(3), 三部九候(3), 開闔樞(2), 表裏(2), 標本(2), 經隧(2), 男女(2), 補瀉(2), (이하 각 1회) 太過, 奇恒, 方位, 多少, 水火, 八情, 有餘不足

『素問』의 논지에 중요하게 작용한 개념어의 다빈도의 순위(10회 이상 만 산정) 氣血(445) > 臟腑(271) = 六氣(271) > 五行(258) > 三陰三陽(217) > 陰陽(214) > 五運六氣(170) > 經脈(147) = 經絡(147) > 天地(133) > 四時(106) > 星辰(77) > 虛實(76) > 道(53) > 數(30) > 氣味(16) > 七情(13) > 時(10) 였다.

논지의 개념적 맥락을 결정한 2,705개의 개념어 가운데 단연 압도적인 수를 기록한 것은 氣血(445/43.5%)이었다. 개념적 맥락의 논지에 氣血이란 개념어가 445 조문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 개념어 기본적으로 개념구성의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의학적 이론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개념적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들은 五行(258), 三陰三陽(217), 五運六氣(170) 등과 같은 관념적 개념어들이다. 이 가운데 五行은 만물과 그 현상, 심지어 人性, 倫理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최대의 원리로 받아들여졌다⁶¹⁾.

61) 溝口雄三, 丸山松幸, 池田久 편저, 김석근, 김용천, 박규태 옮김. 中國思想文化事典. 서울. 민족문화사. 2003. p.912. '先秦에서 隋까지 전개된 음양오행의 체 학설을 모아 정리한 수나라 소길(蕭吉) <五行大義>에서는 오행은 조화의 근원 그리고 인륜의 원천이며, 음양에 뿌리내린 것이라 해서(序文) 오행의 원리성의 향상이 현저하다. <예기정의禮記正義 예운소禮運疏>도 "인의예지신이 있다. 이들은 오행의 수기 秀氣"라고 인륜의 원천으로서의 오행을 인정한다.'

IV. 考 察

본 연구를 통하여 논자는 『黃帝內經素問』에는 다양한 개념어들이 혼재되어 하나의 유기체적인 관념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개념어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여기에 관념과 물질의 두 가지 상반되는 큰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먼저, 관념어군과 대다수 구체어군 간에는 인과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는 두 개의 개념어군이 본래 상호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론과 개념을 지배하는 관념어군은 그 기원과 성질에 따라서 다소 이질적 성격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으며 개념어의 성향을 기준으로 물질 친화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개념어로 분리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素問』의 전체적인 논리를 지배하는 어휘들은 대부분 순수 관념어에 속했다. 이는 『素問』이 형성된 역사적이고,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비의학적 관념들이 인체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치밀하게 구축하고 있고 그 의도에 부합하는 일련의 관념적 개념어들이 위계에 충실한 인체내 조직체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⁶²⁾. 반면, 그 낱선 권위의 관념어들에 맞서 논지의 의학적 가치를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물질을 토대로 한 개념어들이었다. 실제 천문학자이자 정치인이자 주술사이자 철학자이자 임상의이기도 했던 고대의 의사들

62) Arthur Koestler 지음, 최효선 역. 야누스, 서울. 범양사. 1993. p.41. '유기체는 순환기계, 소화기계 등의 아전체(亞全體/sub-whole)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이고, 그 아전체는 차례로 기관과 조직, 개개의 세포와 세포내 소기관이라고 하는 더 낮은 차원의 아전체로 내려간다. 달리 말하자면, 유기체의 구조와 활동은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과정으로써 설명될 수 없고 또 그것으로 환원될 수도 없다. 유기체는 아전체가 다양한 차원의 층을 이루는 '위계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위계구조의 각 구성 요소들은 각개의 차원에서 그 고유한 권리를 지닌 아전체, 즉 홀론(holon)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규제적인 장치를 갖추고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 혹은 자기 통제력을 누리고 있는 안정된 통합구조로 되어 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은 위계구조상 더 높은 중앙에 종속되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준자율적인 전체(quasi-autonomos whole)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생명체를 이해하기 위해 고안한 논리체계 속에서 물질과 현상을 다룬 개념어들은 관념을 다룬 개념어의 형이상학적 구조가 축조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했다. 관념의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텍스트의 논리를 구성하는 핵심적 조직체(system)인데 비해 구체어들은 그 속에 촘촘히 박혀 핏줄 같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리좀(Rhizome)에 가까웠다⁶³⁾.

『黃帝內經素問』의 전체 논지를 개념적 맥락의 구체성과 관념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주제의 경우, 「一般篇」은 구체적 주제를 가진 논지의 조문(75.0%)이 관념적 주제를 가진 논지의 조문(24.9%)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비해 「運氣七篇」에서는 관념적 주제(90%)가 구체적 주제(9.97%)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현저한 관념적 편향성을 나타내었다. 내용에서는 「一般篇」의 경우 구체적 내용(81.8%)이 관념적 내용(18.2%)보다 많아서 비슷한 樣相을 보였으며 「運氣七篇」에서도 구체적 내용(49.4%)과 관념적 내용(50.4%)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주제에서 관념 편향적이었던 성향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제와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경우, 「一般篇」은 관념적 근거(51.6%)가 구체적 근거(46.0%)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으며 「運氣七篇」은 관념적 근거(91.3%)가 구체적 근거(6.6%)를 압도했다. 이는 주제 및 내용에서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素問』의 논지는 개념적 맥락을 구성하는 근거에서 현저히 관념적인 편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3) Gilles Deleuze, Felix Guattari 저, 김재인 역.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2). 서울, 새물결. 2001. 철학자인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elix Guattari)는 천의 고원(Mille Plateaux) (1980)에서 리좀(Rhizome)을 표제어로서 사용한다. 그들 이 말을 樹木型과 대비해서 사용한다. 둘은 관계 맺기의 방식이다. 수목형이 이항대립적(binary)으로 위계를 형성하는데 비해 리좀형은 보다 자유롭게 번식한다. 이 둘은 상호의존적이다. 실제로 분석된 한의학의 개념어들은 위계와 번식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질서를 제공하는 것은 관념적 개념어들이고 관념에 물질적 근거와 활발한 임기응변적 적응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질적 개념어들이다.

논지의 근거를 구축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 개념어들을 거의 관념어군에 편향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구체성 및 관념성을 기준으로 대부분 할 때 논지를 지배하는 것은 五行(258), 三陰三陽(217), 五運六氣(170) 등과 같은 관념 편향적 개념어들과 그것들의 영향 하에 이차적으로 형성된 臟腑(271)와 經絡(147) 등의 개념어이었다. 이에 비해 陰陽(214)과 氣血(445)과 經脈(147) 등과 같은 물질과 현상에 친화적인 개념어들은 논지의 유물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으나 실제 담론의 의미를 결정하는 근거의 맥락으로 작용하지는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素問』은 주제가 구체적(「一般篇」)이든 관념적(「運氣七篇」)이든 내용은 구체적이었으나 그 근거는 관념 편향적이었다. 전체 논지에서 관념적 경향성을 가진 「運氣七篇」을 고려하면 『素問』은 대체로 구체적 담론을 지향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근거를 구성하는 이론분야의 관념성으로 인해 구체적 논지가 대부분 소실되었다.

오늘날 의학적 논리에는 필수적으로 실증적 근거가 요구된다. 관찰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합리적으로 체계화되고 다시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과학적 유기체 이론인 복잡계(complex systems)에 존재하는 창발성(emergence behavior)과 비슷한 개념을 한의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⁶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사성을 가진 유기체적 이론에 있어 개념과 논리를 주도하는 것이 사실이나 관념이나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대한의학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관념의 체계 뿐 아니라 관찰에 의한 실증적 이해에 있어서도 고대의 초기 한의학은 놀라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당시 서양의학은 극

64) 윤영수, 채승병.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7. p.55. '복잡계는 우선 수많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구성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상호작용(interaction)을 주고받는다. 그 결과 구성요소를 따로 따로 놓고 봤을 때의 특성과는 사뭇 다른 거시적인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나타난다. 이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창발(emergence)라고 하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질서적인 현상을 창발현상(emergence behavior)이라고 한다.'

히 미개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⁶⁵⁾. 이처럼 이미 수천 년 전에 유기체적 마인드(mind)를 갖고 세련된 이론체계를 정립시킨 한의학이 현재 깊은 동면에 빠져 버린 것은 논리의 관념적 형식미에 치우쳐 실질의 현상과 물질로부터 멀어진 탓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陰陽과 五行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 한의학에서 용어의 표준화와 개념의 실증성을 숙고할 때, 五行에 의해 관념적으로 고착된 개념체계는 실증적 근거를 구축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극복하거나 개선해야 할 대상이다. 이에 비해 陰陽과 氣의 개념은 한의학의 입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사고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계승,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있다.

V. 結 論

이상과 같은 개념어분석 연구와 조문분석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

1. 『黃帝內經·素問』을 구성하는 한의학의 개념어를 관념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구체어군의 세부항목은 신체부위 구체어, 생리현상 구체어, 병리현상 구체어, 자연현상 구체어, 치료도구 구체어, 공간 구체어, 시간 구체어, 오감 구체어, 맥상 구체어 등으로 나뉘고 관념어 그룹의 세부항목은 관점어, 관념어, 관념 결합어, 물질 결합어, 이중 결합어, 제어어, 수리어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2. 개념어를 분류, 산정한 결과 구체어군과 관념어군의 수적 비중은 거의 동일했으나 이론과 개념적

인 측면에서 구체어군의 영향력은 희박한 반면, 관념어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3. 구체어군과 관념어군 사이에는 개념형성의 인과적인 연관성이 희박하였다. 이는 한의학의 개념과 이론이 유물적 관찰과 추론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철학적 관념과 그것에 의해 천인상응의 유비적 관계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4. 개념적 패러다임(paradigm)을 구성하는 관점은 관념의 성격에 따라서 순수 관념의 개념어들과 물질 기원의 개념어들로 나눌 수 있었다. 전자는 四時, 五行, 五運六氣 등을, 후자는 天地, 陰陽, 生長化收藏 등을 포함하였다.

5. 『素問』의 주요 관점을 형성한 四時, 五行, 五運六氣, 天地, 陰陽, 生長化收藏 등의 개념어들은 단순 관점에서 벗어나 각각 각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념어로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순수 관념의 형태로 『素問』의 개념형성에 논리적 열개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6. 직접 『素問』의 의학적 개념을 구성하는 어휘는 관념 친화적 개념어와 물질 친화적 개념어로 나눌 수 있었다. 전자는 臟腑, 經絡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氣血, 脈 등을 포함한다. 이들 사이에도 개념형성의 연관성은 희박하였으며 각각의 개념어는 독자적인 영역과 역할을 갖고 있었다.

7. 개념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개념어는 五行이었다. 五行은 四時, 五運六氣 등으로부터 우주적 권능을 부여받아 臟腑, 經絡 등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기본적인 논리체계의 프레임(frame)을 제공하였으며 제반 요소를 개념적으로 재편하는 기준이 되었다.

8. 관념적 체계의 이면에서 실제 생, 병리적 현상과 결부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개념어는 陰陽(1,437

65) Robert Temple.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 서울. 까치글방. 2009. p.136. '다수의 문헌에 남아 있는 명백한 증거로 보아, 우리는 중국에서 혈액순환의 원리가 늦어도 기원전 2세기에는 이미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원리가 완전하고 복잡한 학설로서 黃帝內經(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서에 상당하는 중국의 서적)에 기록된 사실로 볼 때, 최초의 아이디어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안전하게 말하더라도, 이 학설이 중국에 나타난 것은 서양보다 약 2000년 전도 빨랐다.'

회)과 氣(1,789회)血(313회)이었다. 이 가운데 陰陽은 유물적 현상의 편차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氣血은 유물적 성질과 기세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활용되었다.

9. 『黃帝內經素問』을 1,022개의 조문으로 나뉜 그 논지의 구체성과 관념성을 분석한 결과, 주제와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나 근거는 현저히 관념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素問』의 전반적인 담론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주장의 근거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의학 외적인 관념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0. 이론체계의 관념성은 「一般篇」에 비해 「運氣七篇」이 현저히 심했으나 논리체계를 구성하는 개념어의 내용에서는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1. 『素問』의 논지에 있어 이론적 체계를 형성하는 근거로 사용된 개념어는 五行(258), 三陰三陽(217), 五運六氣(170), 臟腑(271), 經絡(147) 정도로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陰陽(214), 氣血(445), 六氣(271), 經脈(147) 등 유물적 성향의 개념어들이 논지의 실증적인 근거를 구축하는데 소비되었다.

參 考 文 獻

1. 김명희, 이병욱, 김은하. 脾胃論에 기재된 술어의 분류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3(1). pp.163~86.
2. 김민건, 이병욱, 김은하. 小兒藥證直訣과 脾胃論에 기재된 용어 비교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1). pp.59~79.
3. 박영환, 박경남, 맹웅재. 28宿에 대한 考察:內經과 類經을 중심으로. 한국사학회지. 2007. 20(1). p.168.
4. 이충열 외 5人. 음양이론의 객관적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the study for establishment of objective indices on Yin-Yang theory).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1999. 2.
5. 역사연구모임. 단숨에 읽는 세계사. 서울. 베이직북스. 2007. p.50.
6. 허정. 아시아 전통의학을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7. p.71.
7.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2005. p.1448.
8. 한중현, 김기영 共編譯. 한방약리학. 서울. 도서출판 의성당. 2004. pp.30~2.
9. 강진원. 알기 쉬운 역의 원리. 서울. 정신세계사. 2003. pp.143~57
10. 박재주. 주역의 생성 논리와 과정철학. 서울. 도서출판 창계. 1999. p.308.
11. 殷南根 저, 이동철 역. 오행의 새로운 이해.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p.97~107.
12. 溝口雄三, 丸山松幸, 池田知久 편저, 김석근, 김용천, 박규태 옮김. 中國思想文化事典. 서울. 민족문화사. 2003. p.912, 936, pp.900~1
13. 김희정. 몸 국가 우주 하나를 꿈꾸다. 서울. 궁리출판. 2008. pp.24~5, 149~51.
14. 余自漢 외. 黃帝內經의 기원. 서울. 일지사. 2003. p.193, pp.38~40.
15. 李浚川 지음, 장경선, 권영규, 김남일 역. 醫易學思想.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206.
16. 張其成 지음, 정창현 외 3人 공역. 한의학의 원류를 찾다. 서울. 청흥. 2008. pp.402~3.
17. 김일권. 동양 천문 사상 하늘의 역사. 서울. 예문서원. 2007. p.26, pp.6~7.
18. 김일권. 동양 천문 사상 인간의 역사. 서울. 예문서원. 2007. p.19.
19. 김교빈, 박석준 외. 동양철학과 한의학 (Oriental Medicine and Philosophy). 서울. 아카넷. 2003. p.54.
20. 梁啓超, 馮友蘭 외 지음,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서원. 1993. pp.300~4.
21. Jacqueline Filshie, Adrian White 저, 김지훈 외 3人 譯.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 medical acupuncture(a western scientific

- approach). 서울. 대한추나학회출판사.
2001. p. 412.
22. 李澤厚 지음, 정병석 옮김. 중국고대사상사
론. 서울. 한길사. 2005. p.608.
23. Benjamin Schwartz 저, 나성 옮김. 중국 고
대 사상의 세계(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서울.
(주)살림출판사. 2004. pp.533~4.
24. 加納喜光. 몸으로 본 중국 사상(중국의학의
탄생). 서울. 도서출판소나무. 1987. pp.125
~34.
25. 黃龍祥 지음, 박현국, 윤중화, 김기욱 역. 中
國 鍼灸 學術史 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p.127~31.
26. 周一謀 저, 金南一, 印昌植 共譯. 고대 중국의
학의 재발견.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p.33
~4.
27.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서울. (주)휴머
니스트 출판그룹. 2007. p.100.
28. 陳大舜, 曾勇, 黃政德 저, 맹웅재 외 9인 옮
김. 各家學說(中國篇). 경기도. 대성의학사.
2004. p.134.
29. 楊維傑 編. 黃帝內經 譯解. 서울. 成輔社.
1980.
30. Arthur Koestler 지음, 최효신 역. 야누스.
서울. 범양사. 1993. p.41.
31. Gilles Deleuze, Felix Guattari 저,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2). 서울. 새물결. 2001.
32. 윤영수, 채승병.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
연구소. 2007. p.55.
33. Robert Temple 지음, 과학세대 옮김. 그림
으로 보는 중국의 과학과 문명. 서울. 까치글
방. 2009. p.136.